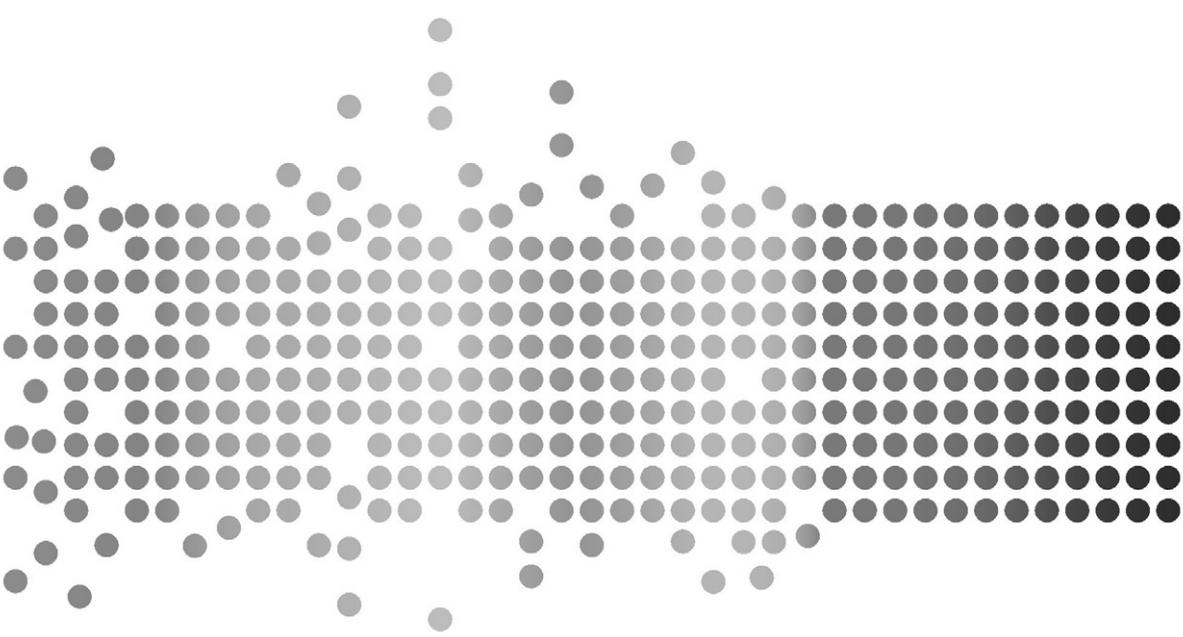


결혼행태 변화와 출산율의 상관성 연구

A Study on Changes in Marriage Patterns and
Their Impact on the Fertility

변용찬 · 김동희 · 이송희



연구보고서 2010-30-3

결혼행태 변화와 출산율의 상관성 연구

발행일 2010년 12월
저자 변용찬 외
발행인 김용하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우: 122-705)
전화 대표전화: 02) 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쇄처 대명기획
가격 5,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

ISBN 978-89-8187-701-9 93330

머리말

인구는 과거로부터 국가를 지탱하는 3요소(국민, 영토, 주권)의 하나이며, 개개인의 출산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적절한 출산율은 총부양비(=유소년부양비+노년부양비)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국가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기초가 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인구감소를 경험할 위험에 처해있으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연간 출생이수의 대부분('08년 98.5%)이 법률혼 부부에서 출생하여, 출산율은 결혼건수 증감과 연동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결혼시기의 변화는 출산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최근 사회현상의 복합적인 변화 결과 이혼·별거가정, 재혼가정 등 다양한 혼인종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결혼은 여전히 가족을 형성하는 주요 사건이며, 개인과 그들 가족의 안녕과 복지에 지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결혼수준과 결혼행태 변화는 그 자체로서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다.

근래에는 결혼을 늦게 하거나 하지 않는 만혼과 비혼 현상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면서, 결혼에 대한 사회적, 학문적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에 대한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연구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출산율 하락의 원인을 규명하거나 향후 출산율 추이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결혼행태 변화와 출산율 간의 상관성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결혼행태 변화와 출산율의 실태분석과 함께 결혼행태 변화와 출산력간의 상관성 정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책방안을 제

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본 보고서는 본 원의 변용찬 선임연구위원의 책임 하에 통계청 김동희 과장, 그리고 본 원의 이송희 연구원에 의하여 완성되었다. 연구진은 본 보고서를 읽고 유익한 조언을 해주신 우리 원의 이삼식 실장과 신윤정 연구위원에게 감사를 드리고 있으며, 또한 연구 진행과정에서 성실하게 도와준 김유진 자료정리요원에게 감사를 표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 연구자의 개별입장을 대변함을 밝혀 둔다.

2010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김 용 하

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1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3
제2장 선행연구 검토	17
제1절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7
제2절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1
제3절 결혼과 출산의 상관성	25
제3장 결혼행태의 변화	33
제1절 혼인 및 이혼추이	33
제2절 연령구조별 혼인	34
제3절 연령별 인구구조	38
제4절 혼인상태별 인구	42
제5절 혼인종류별 혼인	44
제6절 외국인과의 혼인	49
제7절 동거기간별 이혼	51

제4장 혼인상태에 따른 출산율	55
제1절 합계출산율	55
제2절 템포조정 합계출산율	56
제3절 유배우 합계출산율	58
제4절 유배우상태 보정 합계출산율	61
제5절 미혼인구 증가와 합계출산율	65
제5장 결혼행태와 출산율의 상관성 분석	69
제1절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69
제2절 기혼부인의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75
제3절 결혼에 대한 가치관 및 결혼 정책의 필요성	85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91
제1절 결론	91
제2절 정책제언	93
참고문헌	97
부 록	105

표 목차

〈표 2- 1〉 결혼하지 않은 이유27

〈표 2- 2〉 연령별 유배우출산율: 1981~200528

〈표 2- 3〉 추가 자녀를 갖지 않으려는 주된 이유29

〈표 3- 1〉 혼인(이혼)건수 및 조혼인(이혼)율 추이: 1970~2009 ...33

〈표 3- 2〉 주요 연령별 혼인추이: 1990~200935

〈표 3- 3〉 평균 초혼연령 및 재혼연령 추이: 1990~200936

〈표 3- 4〉 2009년 연령별 성비41

〈표 3- 5〉 혼인상태별 인구총조사 인구: 1990~2005년43

〈표 3- 6〉 여자의 연령별 유배우율: 1970~2005년44

〈표 3- 7〉 여자의 연령별 미혼율: 1970~2005년44

〈표 3- 8〉 초혼 및 재혼 건수 및 구성비: 1990~2009년45

〈표 3- 9〉 남·여별 평균 초혼연령 및 차이: 1990~2009년47

〈표 3-10〉 남자 초혼의 최빈값 및 최빈값의 혼인건수:
 1960~1980년생48

〈표 3-11〉 남자의 출생코호트별 누적 초혼비율: 1960~1990년생 ...49

〈표 3-12〉 외국인과의 혼인추이: 2000~200950

〈표 3-13〉 동거기간별 이혼추이: 1990~200952

〈표 4- 1〉 기간 합계출산율과 B-F 조정 합계출산율 추이: 1994~2009년 ..58

〈표 4- 2〉 유배우 출산율 추이: 1995~2009년60

〈표 4- 3〉 유배우율의 정점값 및 정점 추이: 2000~200962

〈표 4- 4〉 합계출산율 및 유배우상태 보정 합계출산율: 1995~2009년 ...64

〈표 4- 5〉 유배우 조정 TFR: 1995~2009년64

〈표 4- 6〉	템포조정 유배우상태 보정 합계출산율과 합계출산율의 차: 1995~2009년	65
〈표 4- 7〉	출산순위별 유배우상태 보정 TFR 및 유배우 조정 TFR: 1995~2009년	65
〈표 5- 1〉	교육수준별 결혼의향이 있는 비율	69
〈표 5- 2〉	취업상태별 결혼의향이 있는 비율	70
〈표 5- 3〉	거주지역별 결혼의향이 있는 비율	70
〈표 5- 4〉	부모와의 동거여부별 결혼의향이 있는 비율	71
〈표 5- 5〉	부모로부터의 도움여부별 결혼의향이 있는 비율	71
〈표 5- 6〉	부모의 이혼 경험 여부별 결혼의향이 있는 비율	72
〈표 5- 7〉	가치관(결혼은 개인보다 가족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 찬성여부별 결혼의향비율	72
〈표 5- 8〉	가치관(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 찬성여부별 결혼의향비율	73
〈표 5- 9〉	가치관(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찬성 여부별 결혼 의향 비율	73
〈표 5-10〉	결혼의향 분석에 사용된 변수	74
〈표 5-11〉	결혼의향을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75
〈표 5-12〉	연령별 총출생아수의 분포	76
〈표 5-13〉	연령별 기대되는 총출생아수의 분포	76
〈표 5-14〉	교육수준별 총출생아수의 분포	77
〈표 5-15〉	교육수준별 기대되는 총출생아수의 분포	77
〈표 5-16〉	취업상태별 총출생아수의 분포	78
〈표 5-17〉	취업상태별 기대되는 총출생아수의 분포	78
〈표 5-18〉	가구소득별 총출생아수의 분포	79

Contents

〈표 5-19〉 가구소득별 기대되는 총출생아수의 분포	79
〈표 5-20〉 거주지역별 총출생아수의 분포	80
〈표 5-21〉 거주지역별 기대되는 총출생아수의 분포	80
〈표 5-22〉 출생국적별 총출생아수의 분포	80
〈표 5-23〉 출생국적별 기대되는 총출생아수의 분포	81
〈표 5-24〉 초혼연령별 총출생아수의 분포	81
〈표 5-25〉 초혼연령별 기대되는 총출생아수의 분포	82
〈표 5-26〉 재혼여부별 총출생아수의 분포	82
〈표 5-27〉 재혼여부별 기대되는 총출생아수의 분포	82
〈표 5-28〉 이혼여부별 총출생아수의 분포	83
〈표 5-29〉 이혼여부별 기대되는 총출생아수의 분포	83
〈표 5-30〉 기혼부인의 출산력 분석에 사용된 변수	84
〈표 5-31〉 기혼부인의 출산력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	85
〈표 5-32〉 결혼에 대한 생각	86
〈표 5-33〉 결혼에 관한 국가정책에 대한 생각	86
〈표 5-34〉 (필요한 경우) 필요한 정책	87
〈부표 1〉 혼외출생아 수 및 비율	105

그림목차

[그림 3- 1] 조혼인율 및 조이혼율 추이: 1980~2009	34
[그림 3- 2] 평균 초혼연령추이: 1990~2009	35
[그림 3- 3] 대학진학률 추이: 1984~2009	37
[그림 3- 4] 초혼연령의 전년대비증가율 추이: 1991~2009	37
[그림 3- 5] 우리나라 연앙인구 추이: 1970~2009	38
[그림 3- 6] 연령별 2009년 인구 피라밋	39
[그림 3- 7] 주 혼인연령층(25~39세)인구 추이: 1970~2009 ..	40
[그림 3- 8] 출생성비 추이: 1981~2009	41
[그림 3- 9] 남여의 연령차별 혼인 구성비 추이: 1990~2009	42
[그림 3-10] 남자의 출생연도별 연령별 혼인 누적비율: 1960~1990년생	49
[그림 3-11] 외국인과의 혼인추이: 2000~2009	50
[그림 3-12] 동거기간별 이혼추이: 1990~2009	51
[그림 4- 1] 동거기간별 출생 구성비: 2000~2008년	61
[그림 4- 2] 유배우 인구비율: 2001~2009년	62



Abstract

- This study analyzes the state of marriage and the fertility rate, measures correlation between changes in marriage and the fertility, and based on the analysis, suggests policy measures to raise the number of births. This study complements the limitations of total fertility rate which is regard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indicators in childbirth promotion policy on a macro level but fails to fully reflect the reality. The study also examines the impact of marriages which are directly associated with the fertility but did not receive much attention before. We measured the average number of children that would be born to a married woman using the total fertility rate adjusted for marital status, thus separating the impact of the unmarried population from the total fertility rate.
- On a micro level, we analyzed the unmarried population's intention to get married, using the data from the "National Survey of Marriage and Fertility Trends 2009" by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d also analyzed married women's current fertility and expected fertility. Thus, we were able to measure the impact of changes in marriage such as marriage age and types of marriage. We found that among many reasons for the low fertility, changes in marriage such as increased age at first marriage and changes in divorce are the main causes. Increased

age at first marriage results in delayed childbirth, making the prospect of effecting a rapid increase of the fertility more elusive. The study shows that both a marriage promotion policy that can lower the age at first marriage and a childbirth promotion policy targeting married women are needed to raise the fertility rate.

- To solve the problem of the low fertility rate, we need to provide incentive to married women to have at least 3 children, which seems very difficult to realize given the circumstances. Thus, it is important to lower the rate of the unmarried by a marriage promotion policy. It is also important to have a policy that lowers the costs of child care and education, enhances government's financial support for child care, and promotes a marriage and childbearing friendly society where mothers are not discouraged to return to their old jobs.

요약

저출산 고령 사회는 우리가 극복해야할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가고 있다. 이의 극복을 위해 정부에서는 출산장려정책을 범국민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출산은 혼인중인 부부에게서 발생하며, 혼인 외의 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적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는 혼인과 직접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혼인건수의 감소 특히 초혼건수의 감소는 출산에 직접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혼인건수의 감소는 만혼 및 비혼 증가에 따른 현상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혼인행태의 변화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계량화하지 않아 그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행태 변화와 출산율의 실태분석과 함께 결혼행태 변화와 출산력간의 상관성 정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책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거시적인 차원에서 출산장려정책 등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는 합계출산율 지표가 현실을 보다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고 출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면서 얼마만큼의 영향이 있는지 검토가 제대로 안된 혼인의 영향을 검토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 현재 주요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는 합계출산율 개념을 유배우상태 보정 합계출산율 작성방법을 제안하고 미혼인구의 영향으로 분리하였다. 이를 시산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유배우상태 보정 합계출산율을 이용하여 합계출산율의 의미인 총 출생자녀수를 측정할 수 있었으며, 둘째, 합계출산율로부터 미혼인구의 영

향을 분리할 수 있었다. 즉, 템포조정된 유배우상태 보정 합계출산율과 템포조정된 합계출산율로 미혼인구의 영향을 분리하였다. 우리나라 통계자료에 이를 반영해 본 결과, 템포효과를 제거한 조정 유배우상태 보정 합계출산율은 2009년 1.72명이며, 조정 합계출산율은 1.48명으로 미혼인구로 인한 영향이 0.2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혼인구로 인해 0.24명 정도 합계출산율을 낮추고 있었다. 향후 안정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인구대체수준의 합계출산율인 2.1명이 되기 위해서는 유배우상태 보정 합계출산율은 2.4명 수준이어야 한다. 즉 유배우자 2명 중 1명은 3명을 1명은 2명의 아이를 출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2009년의 수치이고 사실상 미혼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향후 미혼자가 늘어나고 유배우자가 준다고 가정하였을 때 유배우상태 보정 합계출산율은 이보다 더 높아야 할 것이다.

향후 저출산의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유배우자의 출산율 상승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유배우 부인당 약 3명의 자녀를 출산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여야 하므로 이것은 사실상 실현이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미혼율을 낮추는 방향 즉, 혼인을 장려하는 정책을 통해 미혼율을 낮추는 것이 저출산 해결의 열쇠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거시적인 분석에 더하여 미시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자료는 200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이다.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여 미혼인구를 대상으로 이들의 결혼의향에 대한 분석을, 그리고 기혼부인에 대해서는 현재의 출산력과 기대되는 출산력 수준을 분석하여, 결혼연령, 혼인 유형 등 결혼 행태 변화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먼저, 미혼인구를 대상으로 결혼의향에 대한 분석 결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결혼의향은 낮아지고 있으며, 여성의 결혼의향은 남성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전반적으로 결혼의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하고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실업자인 경우 이변량 분석에서는 유의하게 결혼의향이 낮았으나, 다변량 분석에서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변수 중에서는 부모의 이혼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결혼의향을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가치관 변수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족이 개인보다 우선한다는 의견에 찬성하는 경우 반대하는 경우에 비하여 결혼의향이 높으며, 결혼과 무관하게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의견에 찬성하는 경우 반대하는 경우에 비하여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인구의 결혼의향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취업은 결혼의향의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남녀 모두 교육기간의 증대와 취업준비 기간의 확대 등의 요인으로 초혼연령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학원 진학이나 취업준비생 등 결혼적령기 남녀의 결혼을 현실화 할 수 있는 지원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미혼인구의 결혼의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 취업률의 상승이 큰 영향을 미치므로 청년 미혼인구의 취업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혼부인을 대상으로 현재의 출산력 수준과 기대되는 출산력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시도한 결과, 개인변수 중에서는 연령과 거주지역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총 출생아 수와 기대자녀수는 많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다변량 회귀분석에서도 읍·면지역 거주자인 경우 동지역에 비해 출생아 수와 추가 기대자녀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수준과 가구 소득은 기혼부인의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편, 외국출생자의 출생아수는 한국출생 부인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대출생아수를 보면, 이러한 영향은 사라지므로, 한국출생부인의 기대자녀수만큼 출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혼변수로서 결혼연령과 재혼여부 그리고 이혼 및 별거여부를 분석한 바, 재혼변수를 제외한 결혼연령과 이혼 여부가 기혼부인의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연령이 높을수록 총 출생아 수 및 기대 자녀 수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연령 1

세 상승 시 총 출생아 수가 0.067명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혼 및 별거 여부는 출생 자녀수의 감소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미시적인 분석 결과 나타난 시사점을 보면, 최근의 저출산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초혼연령의 증가 등 만혼화와 이혼 등 결혼 행태의 변화 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자녀 출산 시기가 늦어져 출산 수준의 획기적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처럼 미시적인 분석 역시 초혼연령을 낮출 수 있는 정책인 혼인장려정책의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출산율은 결혼 행태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지금과 같은 만혼화가 계속되지 않도록 정책적인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결혼에 대한 국가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 동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결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주택 마련에 소요되는 비용과 결혼 비용의 지원 요구도 높았다.

실제로 결혼연령은 출생이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마이너스 효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혼과 같은 결혼 행태의 변화 역시 출생이수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다. 남녀 모두 교육기간의 증대와 취업준비 기간 확대 등의 요인으로 초혼연령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초혼연령을 낮출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혼외출산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결혼 후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유배우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결혼에 대한 국가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의 미혼 및 기혼 여성이 동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혼과 출산 친화적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

미혼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서 결혼에 유리한 사회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먼저, 결혼 관련 교육, 정보 및 서비스의 체계적 제공이 요구된다. 전혼례문화조성을 통한 결혼비용 부담 완화정책과 주택 마련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리고 결혼자금 대출 등 결혼 비용의 지원 등 결혼에 대한 사회제도적 지원장치의 강화가 필요하다. 미국 대학가의 부부 학생을 위한

저렴한 기숙사나 아파트 등과 같이 대학원 진학이나 취업준비생 등 결혼적령기 남녀의 결혼을 현실화 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이 요구되며, 기혼 사병의 복무기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융자조건 우대 및 소득공제 확대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미혼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자녀 보육 및 교육 등 양육비 절감 정책 및 양육비 지원 강화도 필요하다.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 강화, 3자녀 이상 대상 자녀의 교재교구비, 학교피복비, 교통비 등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유연한 근무형태의 확산, 휴가휴직제도의 활성화, 육아지원 인프라의 강화 등이 요청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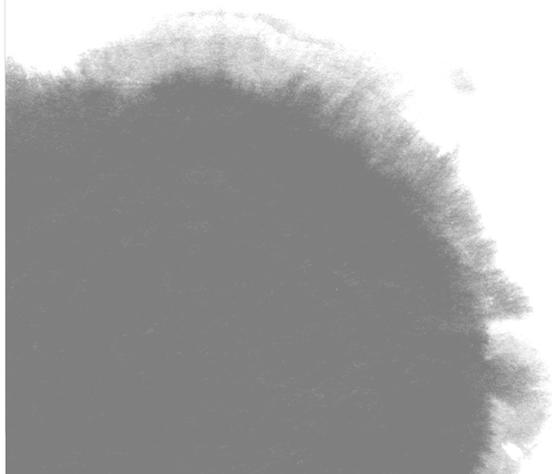
그리고 3자녀 이상 가정 대상 주거지원 강화가 요청된다.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분양순위 상향 조정, 임대아파트 우선분양 및 평형 선택시 우대, 주택자금 융자 확대 등이 있어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이동수당 등을 통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소득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여성의 경력 단절 방지 등 결혼·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적 및 양성 평등적 가족 및 직장 문화운동을 전개하고, 결혼과 출산시 직무배치, 승진 등에서의 차별 관행을 철폐하며, 초·중·고 교과과정 교재에 시대에 맞는 인구교육내용을 반영하는 등 결혼 및 자녀 가치관을 정립하여야 한다. 또한 대중매체를 통한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홍보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는 등 결혼·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01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인구는 과거로부터 국가를 지탱하는 3요소(국민, 영토, 주권)의 하나이며, 개개인의 출산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적정한 출산율은 총부양비(=유소년부양비+노년부양비)를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국가발전을 지속할 수 있는 소재가 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감소를 경험할 위험에 처해있으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통계청(2010)이 최근 발표한 2009년 혼인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우리나라 결혼 건수는 모두 31만 여 건으로 인구 천 명당 결혼건수(조혼인율)가 지난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인 6.2건이었다. 결혼 건수는 1996년의 43만여 건을 정점으로 이후 감소 추세인 한편, 2009년 평균초혼 연령은 남성이 31.6세, 여성이 28.7세로 가장 늦은 기록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경제난과 취업난 등으로 20대 후반 인구의 결혼이 줄어든 것이 원인이라고 분석하였다. 최근에 나이가 많은 미혼남녀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졸업, 취업, 결혼, 출산으로 이어지는 생애 과정을 거치는 점을 감안할 때,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경우 출산이 어렵고 이는 사회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의 출산율로 나타나게 된다. 특히 혼외 출산을 터부시 하는 규범이 강할 때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저출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사회에서 연간 출생아수의 대부분('08년 98.5%¹⁾)이 법률혼 부부에

서 출생하여, 출산율은 결혼건수 증감과 연동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결혼시기의 변화는 출산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최근 연구 결과에서는 저출산현상의 약 절반정도가 만혼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최근 사회현상의 복합적인 변화 결과 이혼·별거가정, 재혼가정 등 다양한 혼인종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출산율 하락의 원인을 규명하거나 향후 출산율 추이를 전망하기 위해서는 결혼행태 변화와 출산율 간의 상관성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러한 저출산의 원인은 출산량의 감소와 출산시기의 변화에서 찾을 수 있다(김승권, 2004). 출산량 감소의 경우에는 기혼여성들이 자녀를 적게 갖는 것에서, 출산시기의 변화는 가임기간 여성들의 미혼율 증가와 결혼연령 상승에서 기인한다. 저출산의 원인은 결혼을 한 여성들이 출산 자녀 수를 줄이는데도 기인하지만, 젊은이들이 결혼을 연기 혹은 포기함에 따라 아예 출산의 기회가 사라지는 것도 큰 원인이 되는 셈이다(은기수, 2004). 혼인 적령기의 남녀가 결혼을 연기하거나 포기하는 이유는 결혼규범의 변화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지만, 근래 전반적으로 취업상황이 악화되고 이로 인해 결혼을 진행할 경제적 여유가 없는 점도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을 기혼여성의 출산율 하락보다는 가임여성 중 미혼이 차지하는 비율의 증가로 보고 이에 대한 설명을 하는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은기수, 2001; 전광희, 2002; 김정석, 2006; 조은, 2008; 조희금 외, 2009). 연령별 미혼 비율이 증가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은 첫째로 가임기간의 많은 여성들이 미혼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재의 출산력 수준이 낮아지고, 둘째로 초혼연령의 증가와 같은 만혼이 늦은 임신과 빠른 임신종결을 초래함으로써 인하여 원하는 수만큼의 자녀를 갖지 못하게 하여 잠재적인 출산력 수준을 떨어뜨리게 된다(이성용, 2006).

우리보다 먼저 저출산을 경험한 유럽국가들의 경험에 의하면 저출산은

1) 부록표 참조

많은 예산과 노력을 투입하고,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도 저출산 문제의 해결을 위해 2004년에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고령화미래위원회의 신설을 시작으로 다양한 출산장려정책 및 홍보를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출산율은 2005년 1.08명을 저점으로 다소간 회복되기는 하였으나, 2009년 1.15명으로 여전히 일부 도시국가를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최저수준을 기록하고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결혼은 여전히 가족을 형성하는 주요 사건이며, 개인과 그들 가족의 안녕과 복지에 지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결혼수준과 결혼행태 변화는 그 자체로서 매우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다. 근래에는 결혼을 늦게 하거나 하지 않는 만혼과 비혼 현상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되면서(박순일 외, 2004), 결혼에 대한 사회적, 학문적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에 대한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연구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출산은 혼인중인 부부에게서 발생하며, 혼인 외의 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작다. 따라서 저출산 문제는 혼인과 직접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혼인건수의 감소 특히 초혼건수의 감소는 출산에 직접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혼인건수의 감소는 만혼 및 비혼 증가에 따른 현상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혼인행태의 변화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계량화하지 않아 그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결혼행태 변화와 출산율의 실태분석과 함께 결혼행태 변화와 출산력간의 상관성 정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혼인행태의 변화가 가져온 혼인감소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이것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계량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선행연구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 이어서 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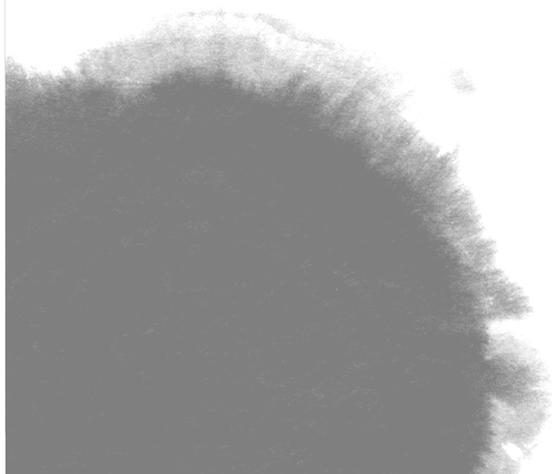
혼인행태의 변화 및 그 원인을 파악하고, 이러한 혼인행태의 변화로 인한 혼인연령의 상승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4장에서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제5장에서는 미시적인 표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결혼의향에 미치는 요인과 기혼부인의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그리고 결혼 정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다. 제6장에서는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고 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혼인장려정책이 필요한지 여부와 유배우자의 출산율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야 저출산 문제가 해결가능한가를 검토해 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발간하고 있는 인구동태자료와 같은 거시적인 자료를 활용하여, 출산장려정책 등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는 합계출산율 지표가 현실을 보다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고 출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면서 얼마만큼의 영향이 있는지 검토가 제대로 안된 혼인의 영향을 검토해 보았다.

한편 200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대규모 사회조사자료인 『2009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인 미시적인 자료를 이용해 미혼 남녀의 결혼의향과 기혼부인의 출산력과의 상관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분석을 위해서 교차분석과 함께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도하였으며, 기혼부인의 출산력 분석을 위해서는 교차분석과 회귀분석을 시도하였다.

02

산행연구 검토





제2장 선행연구 검토

제1절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많은 선행연구에서 결혼연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회인구학적 변수로서, 소득과 교육수준, 취업여부 등을 보고하고 있으며, 결혼의향 역시 이러한 사회인구학적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 성과 연령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9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결과에 의하면 미혼 남성의 69.8%만이 결혼에 긍정적 태도를 보였고, 여성의 63.2%만이 결혼에 긍정적 태도를 보였으며, 결혼을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비율이 높았다. 김두섭 외(2007)는 통계청의 1998년, 2006년의 자료를 비교하여 결혼의 필수성 보다는 선택성을 인정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으며, 남성보다는 여성이 결혼의 개인적 선택에 대한 허용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변화하는 결혼에 대한 태도에 남녀차이가 있으며(김정석, 2006), 결혼의향과 결혼시기의 결정에 있어서도 성차가 나타나며 남성과 여성의 결혼의향, 결혼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도 다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조희금 외, 2009). 이외에도 개인들의 결혼의향은 연령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가령, 혼인연령규범이 지속되고 사회적으로 결혼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연령이 관찰되는 한, 이를 초과한 연령에서 결

혼을 기대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김정석, 2006).

2. 교육수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시기는 늦어진다고 선행연구들은 공통적으로 보고하고 있다(Goldsheider & Waite, 1986; Lloyd & South, 1996; MacDonald, & Rindfuss, 1981; Marini, 1985; Waite & Spitz, 1981). 특히 여성의 경우 결혼 후에도 학업을 유지한다는 것이 남자보다 힘든 현실이므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이 늦어지는 관련성을 더욱 강하게 나타냈다(Goldsheider & Waite, 1986). 이러한 점에 대하여 교육과 결혼이라는 전이가 같은 시간대에서 시간경쟁적인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에 결혼이 늦어지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Thornton, Axinn, & Teachman, 1995; 이인수, 1994).

출산지원정책을 경제적으로 분석한 조병구 외(2007)는 출산지원정책의 타당성 및 지원효과 분석결과에서, 출산을 저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결혼지연 및 단념을 지적하고 그 원인으로 여성의 고학력화와 임금 상승이 결혼을 미루거나 단념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 그 외에 교육비로 인한 자녀비용의 상승, 주거비용으로 인한 가정의 공공재 가격 상승 등이 결혼이 주는 매력을 감소시켜 결혼지연 및 단념을 가져오는 주요 요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교육수준이 결혼에 미치는 효과는 성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교육수준별 초혼연령 분석결과, 남성의 경우에는 교육기간 연장의 효과를 상쇄하는 교육의 효용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교육수준별 임금격차가 매우 큰 상황에서 고학력의 미혼남성은 결혼시장에서 미래의 배우자로서 선호되며 그 만큼 배우자 선택의 폭이 넓어짐으로써 초혼연령이 빨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박경숙 외, 2005). 또한 미혼남성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은 남자일수록 결혼의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결혼가능성에서 뿐만 아니라 결혼가치관 면에서도 높은 교육수준은 남성에게 유

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김정석, 2006).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교육수준이 높아지면 임금상승과 함께 더 좋은 일 자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취업욕구가 강해지며 이것이 결혼 및 출산을 지연시키게 되어 교육은 결혼연령과 매우 강한 정(正)의 관계를 지니고 있다고 한다(김두섭, 2007a; 박경숙 외, 2005; Lloyd and South, 1996; Goldscheider and Waite, 1986; 최새은·옥선화, 2003). 이는 여성에게서는 높은 교육수준과 취업이 결혼으로의 이행에 있어서 기회비용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에는 교육수준에 따라 초혼연령이 일관되게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박경숙 외, 2005).

따라서 교육수준은 남성에게 중요한 결혼자원으로서 시간이라는 기회비용을 상쇄하는 효과를 보여주는 반면에 여성의 경우에는 결혼으로의 이행에 있어서 시간적 기회비용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교육수준이 낮은 저학력층의 경우에는 남녀를 불문하고 점점 더 결혼시장 진입이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유홍준 외, 2010).

3. 거주지역

거주지역의 경우도 도시와 농촌간의 차이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데, 농촌남성의 결혼시장이 열악한 상황에서 농촌에서의 결혼의향은 다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4. 소득 수준

소득은 결혼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반영하는 것으로 결혼시기 결정의 중요한 예측변수가 된다(Lloyd & South, 1996; South, 2001). 그러나 소득이 결혼시기에 미치는 영향은 남녀에 따라 다르게 보고되고 특히 여성에게 있어서는 소득의 영향력이 상반되게 제시된다. 여성이 높은 임금을 받을수록 일종의 지참금으로서 인식되기 때문에 결혼하기 쉽다는 주장

이 있는 한편, 여성의 임금이 남성의 임금보다 높을 경우 결혼을 통해 여성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바가 없으므로 여성의 결혼시기를 늦추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주장도 있다(Anderson, Hill, & Butler, 1987; Teachman, Polonko, & Leigh, 1987).

5. 취업 여부

취업상태는 노동시장에의 참여를 통해 매력적인 배우자를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고 결혼에 필요한 자원도 풍부하게 해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독립적인 가구 형성의 가능성을 높여주므로 결혼행동과 정적인 관련을 맺는다는 입장이 있다(Waite & Spitz, 1981).

IMF 외환위기 이후 청년층의 실업증가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은 미혼자들이 미혼에서 결혼으로 이행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은기수, 2005; 김두섭, 2007b). 경제위기는 젊은이들에게 장래의 취업 전망에 대한 확신이 줄어들게 해서 혼인을 연기하게 할 가능성이 높으며, 결혼연령 상승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김두섭, 2007a).

박경숙 외(2005)의 연구는 취업이 여성의 초혼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연구자들은 여성의 경우 비취업자와 비교하여 취업자의 초혼시기가 늦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들의 교육 수준 향상으로 고학력 남성이 갖는 고학력의 장점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었고, 1997년 경제위기 이후로 고용시장의 불안과 남성의 생계부양능력의 약화는 여성의 취업에 대한 욕구 강화와 결혼시기 지연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6. 결혼의 안정성

개인의 결혼 의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이혼 등 결혼의 안정성에 대한 인식이다. 이혼의 가능성은 세대간에 전승 될 뿐 아니라 (Diekmann & Engelhardt, 1999; McLanahan & Bumpass, 1988), 가족

성원 중에 이혼을 경험한 사람들은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지만 미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Shostak, 1987). 따라서 부모와 형제자매 중에 이혼경험사례는 결혼에 대한 믿음과 매력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독립가구형성은 부모로부터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의 독립을 의미할 수 있다. 따라서 독립가구에 사는 개인들에 대한 부모의 영향력은 제한적인 것으로 이해된다(김정석, 2006).

7. 가치관

결혼에 대한 가치 및 태도에 있어서도 성차가 나타나는데, 남자가 결혼을 중요시하고, 결혼 생활 유지에 중점을 둔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김혜선, 이정음, 2003). 1983년에 전국인구 이동조사 자료 중 개인사 자료를 토대로 남녀에게 부과되는 결혼규범의 영향을 살펴본 국내 연구에서는, 남자의 경우 안정된 직업을 갖춘 후에 결혼을 해야 한다는 순서규범이 강하게 작용하는 한편, 여자의 경우에는 결혼 전의 경제활동과 상관없이 연령 규범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은기수, 1995). 이와 같이 결혼 가치는 초혼연령에 영향을 미치고 성차를 보인다.

결혼이외의 성관계를 가질 기회의 확대와 비제도적인 남녀간 결합(union formation)의 확산 또한 결혼이 가진 가치와 혜택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논의 된다(Casper & Bianchi, 2002). 이러한 요소들은 혼전 성관계와 혼전 동거에 대한 태도로 접근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제2절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많은 선행 연구들은 출산력 저하의 원인으로 경제적 이유, 교육적 이유, 사회·문화적 이유, 개인적인 이유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들 요인들은 독립적이기 보다 상호작용을 통해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두섭(2006)은 출산행위는 기본적으로 생물학적 과정이지만, 출산력 수준은 경제적인과 아울러 사회문화적 요인들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1. 혼인연령

교육은 혼인연령과 관계를 통해 출산력에 영향을 미친다. 고학력 여성들이 증가하고 부부간 연령차이가 점차 좁혀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고학력 고연령 여성들은 점차 결혼시장에서 배우자를 찾기가 어려워져 결국 혼인을 비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Palomba et. al., ; 1997). 보편혼이 사회규범인 한국에서 고학력 여성들은 미혼의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혼인연령을 늦추나, 만혼으로 적절한 배우자를 찾을 수 없어 결혼을 포기하는 경향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Kim and Li, 1997).

2. 교육 수준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교육을 들 수 있다. 교육은 출산수준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소득, 직업, 경제활동 참가 등의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들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며, 이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또는 상호작용하여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두섭, 2006). 여성의 교육수준과 출산력과의 관계는 지역이나 개발수준 및 문화적 조건 및 시기에 따라 변화한다(UN, 1995). 교육에의 참가는 그 자체로 혼인연령을 상승시켜 첫아이 출산시기를 늦추어 궁극적으로 전체 자녀수를 줄이게 된다. 교육은 다른 부문에의 영향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출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Beets(1997, 이삼식 외, 2006 재인용)에 의하면 교육은 지식과 정보 및 새로운 사상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이는 노동시장과 사회적 지위에서의 여성의 능력과 기회를 고양시키는 역할을 하여, 태도와 행태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그에 의하면, 교육은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고 결혼선호도를 낮추

어 궁극적으로 자녀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3. 거주지역

김혜순(1982)의 연구에 의하면 도시화된 지역에 거주할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인의 연령이 높을수록,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이상자녀수가 적게 나타났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대체로 도시거주자가 농촌거주자보다 출산수준이 낮다. 도시와 농촌의 출산력 수준의 차이는 상당부분이 도시와 농촌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배경의 차이로 설명된다(김두섭, 2006). 한편, 주로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남성과 외국인 여성 사이의 결혼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 가정의 경우 출산력은 어떠한 지는 아직 연구가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4. 취업

Atoh는 현대에 가장 주된 저출산 원인으로 경제적 이유를 들고 있다. 그에 의하면, 대부분 여성들은 풀타임 직업 및 승진을 추구하는 동시에 가사와 자녀 양육을 맡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적어도 과거에, 취업여성이 결혼하거나, 임신 또는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취업을 중단하게 된다. 일단 취업을 중단한 여성들은 자녀 성장 후 재취업(full time)을 원하더라도 동일한 수준의 직업을 가지는 것이 아주 어렵다. 이는 결국 가구소득의 감소를 의미하며 기회비용으로 인식되어 혼인 및 출산기피로 이어진다. 고학력 여성일수록 행정, 경영, 전문가 등 상위직종에 종사하며, 남성 임금과 차이가 줄어들어 자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기회비용이 더 커질 것이다 (Atoh, 1998; 이삼식외, 2004에서 재인용). 또한 여성의 가사와 경제활동 참가간의 양립이 더 큰 문제로 다가옴에 따라, 결국 여성은 아이를 늦게 그리고 적게 가지려는 경향이 있으며, 심지어는 자녀를 갖지 않으려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어서 일과 가정의 조화가 필요하다(아마구찌, 2010).

5. 소득수준

많은 경제학자들은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서는 자녀효용이 증가하고 비용은 낮아져 많은 자녀를 갖게 되며, 경제발전의 다음 단계에서는 소득증대로 인하여 자녀의 효용은 감소되고, 비용은 증대되어 소자녀규범을 형성하게 된다고 한다. 전통적 농업중심사회에서의 자녀에 대한 효용이 비용보다 높기 때문에 다자녀 형성의 동기를 갖지만, 사회발전에 따라 자녀의 효용은 감소하고 비용은 증가하여 소자녀관 규범이 보편화된다고 하였다. 우리나라의 출산력 저하현상을 개별 부모의 경제적 동기 변화이론을 통해 살펴본 결과, 경제발전 내지는 근대화의 전개가 자녀에 대한 경제적 효용을 감소시키는 한편 경제적 비용인식을 증대시켜 소자녀가족을 형성케 했다고 한다 (조혜정, 1988).

6. 가치관

Freedman(1995)은 저출산이 경제적인 이유가 아닌 개인주의적 발상으로서 젊은 세대의 결혼 및 출산연기 등 사회·문화적인 이유에 의해 발생된다고 보고 있다. 경제성장으로 인해 생활이 풍족해지면, 안정주의와 개인주의가 가치관을 지배하게 되는데, 젊은 미혼층의 소비활동이 급격히 증가하여 결국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여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Lesthaeghe et al, 1998). 저연령층은 부모의 집에서 안정적으로 직장에 다니고 일상생활을 어머니에 의존하며 소비생활을 즐기려는 경향이 높아 가족부양 의무를 지지 않는 일종의 귀족적 미혼(aristocratic singles) 또는 기생층적 미혼(parasite singles)이 증가하여 결국 출산을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Atoh, 1998).

제3절 결혼과 출산의 상관성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2009년에는 1.15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출생아 수는 1970년 1,007천명 수준에서 2009년에는 445천명으로 1970년 대비 44.2%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출산율 및 출생아 수의 감소는 조혼인율의 감소와 조이혼율의 증가 등 결혼 행태의 변화와 상관성이 있다. 최은영 외(2009)가 2005년 인구 및 주택 총조사 10% 표본과 2000-2007년 인구동향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로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주 출산 연령대의 미혼율 증가가 저출산 문제의 핵심 원인임을 밝히고 있으며, 따라서 기혼 여성의 출산율 조절만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수의 감소는 첫째, 만혼이나 비혼 등 결혼의 기피 현상과 둘째, 결혼을 한 기혼의 경우 출산 기피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1. 만혼이나 미혼 등 결혼 기피

미혼율이 급증하고 있으며, 45세 이후에도 결혼을 하지 않은 미혼이 증가하고 있다. 1970년 20대 후반의 경우 미혼여성의 비율은 9.7%이고, 30대 후반의 경우 미혼율은 0.4%에 불과하나, 2005년의 경우 20대 후반의 미혼 여성의 비율은 59.1%이고, 30대 후반의 미혼여성의 비율은 7.6%나 되고 있다. 1970년과 2005년 사이 미혼율의 증가는 20대 후반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다음이 20대 초반, 30대 초반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45~49세가 되어도 결혼하지 않은 여성의 비율은 1970년에는 그 비율이 0.0%로서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으나, 2005년에는 2.4%나 되고 있어 결혼 행태의 변화가 크게 나타났다.

그 결과 평균초혼연령은 크게 증가하여 1981년 남자는 26.4세, 여자는 23.2세 이던 것이 2008년에는 남자는 31.4세, 여자는 28.3세로서 남자는 5.0세, 여자는 5.1세 증가하였다. 한편, 미혼 인구를 대상으로 결혼을 하지

않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 ‘아직 결혼하기에는 이른 나이’ 때문에, 교육을 더 받고 싶어서, 자아 성취와 자아 개발을 위해 등 가치관과 관련된 이유가 54.9%로 가장 많았으며, 소득이 적어서, 결혼 비용이 마련되지 않아, 실업이나 고용상태 불안 등 경제적 이유가 31.9% 등 경제적인 이유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결혼하지 않은 이유

(단위: %)

영역	보 기	1순위	2순위
경제적 이유	① 소득이 적어서	8.7	3.9
	② 실업상태여서	4.5	2.8
	③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비정규직, 일용직 등)	3.4	2.3
	④ 집이 마련되지 않아서	3.7	3.5
	⑤ 결혼비용(혼수비용 등)이 마련되지 않아서	6.7	8.2
	⑥ 결혼 생활의 비용에 대한 부담이 커서	4.9	6.9
	소 계	31.9	27.6
사회적 이유	⑦ 결혼으로 인한 직장 내에서의 불이익(강제 또는 권고 퇴직, 인사상 불이익 등) 때문에	0.9	0.9
	⑧ 결혼생활과 직장 일을 동시에 수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1.8	2.3
	⑨ 결혼 생활로 인하여 본인의 사회활동 자장이 있을까봐	0.9	2.2
	소 계	3.6	5.4
가치관	⑩ 아직 결혼하기에 이른 나이지므로	30.8	12.3
	⑪ 결혼에 적당한 나이를 놓쳤기 때문에	3.9	3.1
	⑫ 상대방에 구속되기 싫어서	3.4	7.1
	⑬ 결혼보다 내가 하는 일에 더 충실하고 싶어서 (자아성취와 자기계발을 위해)	5.1	7.3
	⑭ 본인의 기대치에 맞는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마땅한 사람이 없어서)	5.1	8.5
	⑮ 교육을 더 받을 계획이어서	6.2	10.3
	⑯ 결혼을 하면 옹당 아이를 낳아야 하는 상황이 부담스러워서	0.4	1.9
	소 계	54.9	50.5
가족	⑰ 결혼제도가 남편 집안 중심이기 때문에(여자가 자녀양육과 집안일 대부분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1.1	1.8
	⑱ 장애(신체적·정신적) 또는 만성질환(외상상태 포함)을 경험하는 가족 수발 때문에	0.3	0.3
	소 계	1.4	2.1
건강	⑲ 건강문제·장애 때문에	0.6	0.4
	소 계	0.6	0.4
기타	⑳ 시간이 없어서(바빠서)	1.3	2.4
	㉑ 형이나 언니가 아직 미혼이어서	0.8	1.6
	㉒ 결혼할 생각이 없어서	2.5	3.7
	㉓ 외모에 자신이 없어서	0.2	0.3
	㉔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1.7	3.8
	㉕ 부모님이 결혼을 늦추라고 해서	0.4	1.0
	㉖ 형제·자매가 결혼을 늦추라고 해서	-	0.2
	㉗ 친구들이 결혼을 늦추라고 해서	0.0	0.2
	㉘ 기타(무엇:)	0.6	0.6
	㉙ 기타2(무엇:)	0.1	0.1
소 계	7.6	13.9	
합 계	10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원자료 재분석.

2. 기혼부인의 출산 기피

1981년 대비 2005년 여성의 유배우 출산율은 20대 초반의 급격한 감소와 20대 후반의 완만한 감소 경향을 보이거나 30대 이후에는 소폭이나마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만혼의 영향 때문으로 풀이되는데, 20대 초반은 유배우부인 천명당 202명의 자녀를 출산하여 1981년의 440명의 45.9%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20대 후반의 경우 유배우부인 천명 당 출산아 수는 231명으로 1981년의 279명에 비해 82.8% 수준이다. 한편, 30대 초반의 경우 유배우부인 천명 당 출산아 수는 108명으로 1981년의 97명에 비해 111.3% 수준으로 증가 경향이 있다. 그러나 출산율 감소효과(B-A)는 20대 초반에서 유배우 부인 천명당 238명이 감소하여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20대 후반의 경우 48명 감소하여 30대 초반의 소폭 증가 효과를 압도하고 있다.

〈표 2-2〉 연령별 유배우출산율: 1981~2005

(단위: 유배우 부인 1,000명당 출생아수, %)

연령	1981 (A)	1987	1990	1993	1996	1999	2002	2005 (B)	B/A	B-A
20~24세	440	271	360	320	377	386	313	202	45.9	-238
25~29세	279	192	234	237	264	224	250	231	82.8	-48
30~34세	97	41	53	65	88	86	106	108	111.3	11
35~39세	23	6	7	15	11	14	16	17	73.9	-6
40~44세	3	4	1	1	4	4	2	4	133.3	1
45~49세	-	-	-	-	-	-	-	-	-	-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 각 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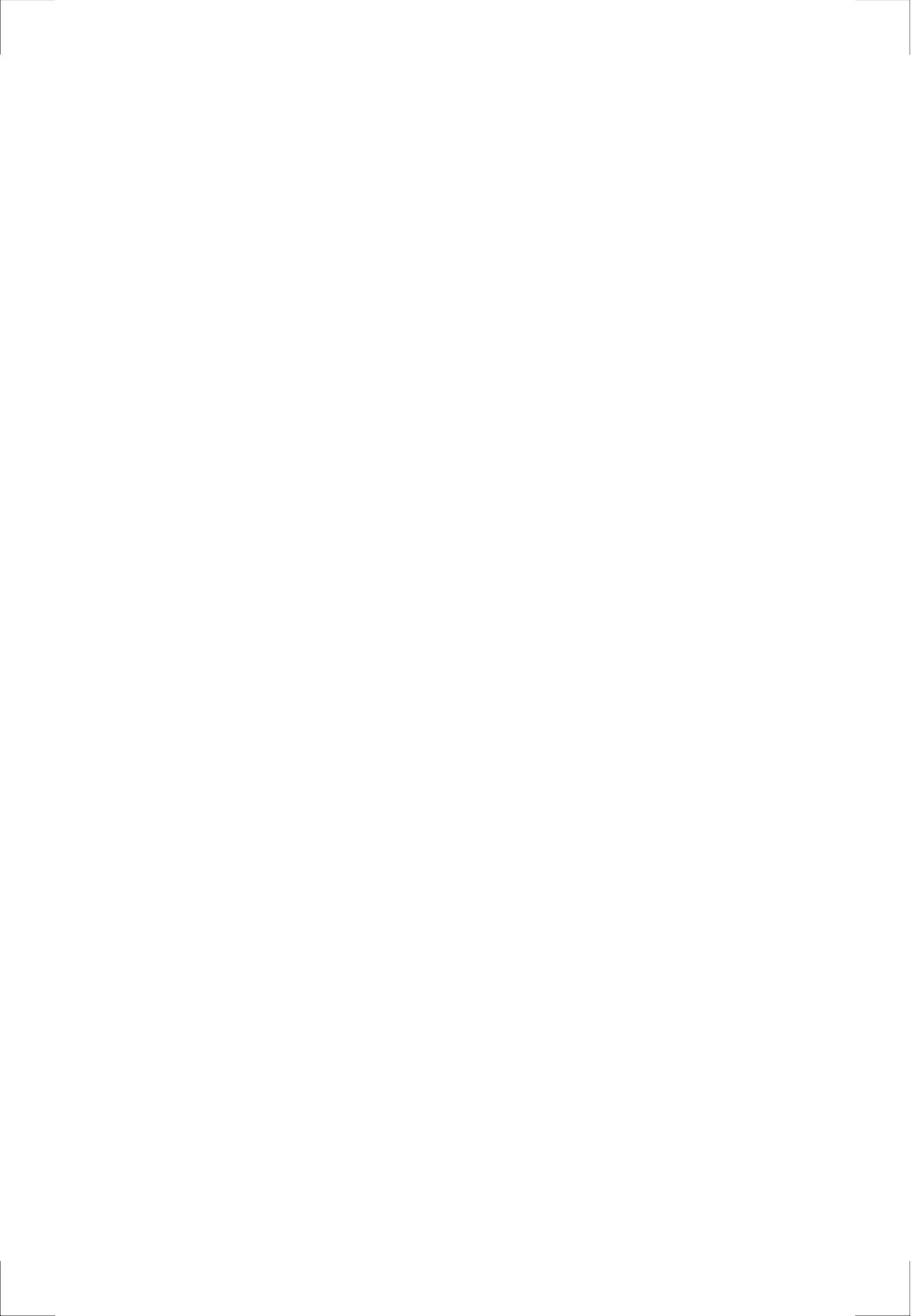
유배우 출산율의 감소는 추가 자녀를 갖지 않으려는 주된 이유와 상관성 있다고 하겠다. 추가 자녀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녀 양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 소득이 적어서 등의 경제적 요인이 53.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계획된 만큼 자녀를 다 낳아서 24.1% 등 가치관 관련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3〉 추가 자녀를 갖지 않으려는 주된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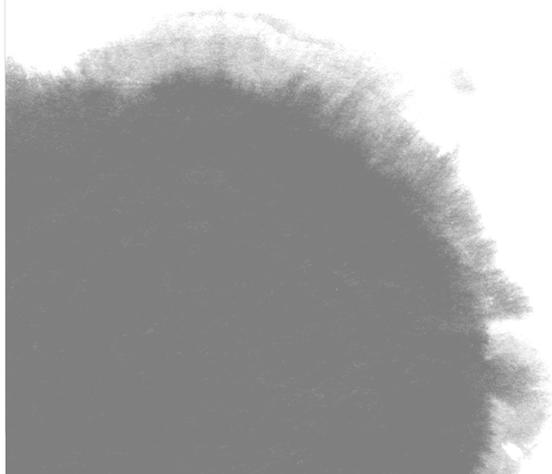
영역	보기	1순위	2순위
경제적 이유	① 소득이 적어서	9.8	5.6
	② 실업상태여서	0.2	1.1
	③ 고용상태가 불안정해서(비정규직, 일용직 등)	2.8	2.0
	④ 자녀 양육을 위한 적절한 주택 마련이 어려워서	2.8	1.5
	⑤ 자녀 양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식품, 의류, 의료비 등)	12.3	12.9
	⑥ 자녀 교육에 많은 비용이 들어서	25.1	19.8
	소 계	53.0	42.9
사회적 이유	⑦ 아이를 돌볼 마땅한 사람이나 시설이 없어서	1.9	5.7
	⑧ 출산으로 인한 직장에서의 차별(불이익)	0.4	0.7
	⑨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하여 본인의 사회활동에 지장이 있을까봐	0.4	1.8
	⑩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자녀들의 장래가 염려스러워서	2.4	10.0
	소 계	5.1	18.2
가치관	⑪ 보다 많은 여가를 즐기기 위해	1.8	4.9
	⑫ 본인 또는 남편이 애를 싫어해서	0.2	1.0
	⑬ 자아성취를 하는 데에 시간이 부족하여	0.5	1.1
	⑭ 부부만의 생활이 즐거워서	0.3	0.9
	⑮ 계획한 만큼 자녀를 다 낳아서	24.1	12.0
	⑯ 남들도 자녀수가 나와 비슷해서	0.7	3.4
	⑰ 아이가 많아서	2.3	1.4
소 계	29.9	24.7	
가족	⑱ 가정 내에서의 가사 및 양육이 공평하게 분담되어 있지 않아서	0.3	0.9
	⑲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서	0.1	0.1
	⑳ 신체적·정신적 장애 또는 만성질환(외상상태 포함)을 겪는 가족의 수발때문에	0.1	0.5
	소 계	0.5	1.5
건강	㉑ 아이가 생기지 않아서	0.9	0.4
	㉒ 본인의 건강문제(정신적·신체적 장애 및 만성질환 포함) 때문에	2.1	2.2
	㉓ 배우자의 건강문제(정신적·신체적 장애 및 만성질환 포함) 때문에	0.0	0.5
	소 계	3.0	3.1
기타	㉔ 나이가 많아서	8.0	9.4
	㉕ 기타(무엇:)	0.4	0.2
	소 계	8.4	9.6
합 계		100.0	100.0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원자료 재분석.



03

결혼행태의 변화





제3장 결혼행태의 변화

제1절 혼인 및 이혼추이

우리나라의 혼인건수는 1990년 이후 쌍춘년 등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인한 일시적인 상승은 있었으나 대체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혼건수는 지속적인 상승추세이며 특히 1997년 급격히 증가한 후 2003년까지 꾸준히 상승하다 2004년 이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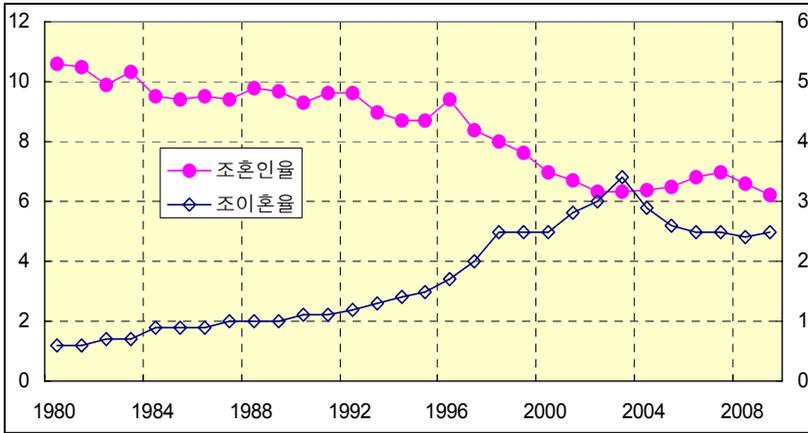
인구 천 명당 혼인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은 1990년 이후 약간의 등락이 있으나 감소하는 추세를 유지하였다. 특히 경제위기를 겪었던 1997년을 계기로 조혼인율이 급격하게 감소하였으나, 외국인과의 혼인이 증가하면서 2004년 이후 혼인건수가 2007년까지 증가하다 다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조이혼율은 이혼건수와 같은 추세를 보이며, 2003년을 정점으로 다시 감소하고 있다.

〈표 3-1〉 혼인(이혼)건수 및 조혼인(이혼)율 추이: 1970~2009

	1970	1980	1990	1997	2000	2003	2005	2008	2009
혼인건수(천건)	295.1	403.0	399.3	388.6	332.1	302.6	314.3	327.8	309.8
이혼건수(천건)	11.6	23.7	45.7	91.1	119.5	166.6	128.0	116.5	124.0
조혼인율(건/인구천명당)	9.2	10.6	9.3	8.4	7.0	6.3	6.5	6.6	6.2
조이혼율(건/인구천명당)	0.4	0.6	1.1	2.0	2.5	3.4	2.6	2.4	2.5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 혼인 및 이혼통계 결과」

[그림 3-1] 조혼인율 및 조이혼율 추이: 1980~2009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 혼인 및 이혼통계 결과」

제2절 연령구조별 혼인

연령별 혼인 추이를 보면 남녀모두 20대 이하의 혼인은 감소하고 30대 이상 혼인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혼인연령이 상승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남자는 2006년까지 25~29세의 혼인이 총 혼인중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나, 그 이후 30대 초반(30~34세)의 혼인이 가장 많으며, 여자는 1995년 이후 20대 후반(25~29세)의 혼인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5~39세의 혼인이 총 혼인중 차지하는 비중이 남자는 80.5%이고 여자는 77.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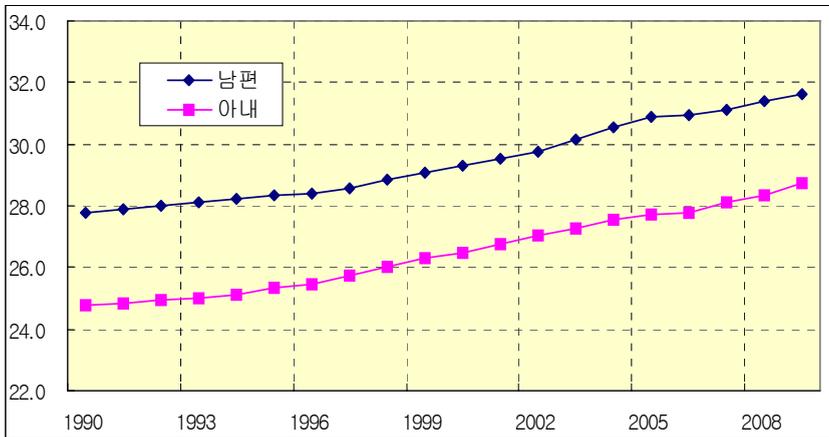
〈표 3-2〉 주요 연령별 혼인추이: 1990~2009

(단위: 천건)

	연령	1990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남자	20~24세	58.8	24.8	14.6	14.8	13.5	11.1	9.2
	25~29세	235.8	162.4	108.5	114.6	116.8	107.5	97.9
	30~34세	73.8	89.2	104.3	111.4	117.1	110.8	106.3
	35~39세	13.1	25.3	35.2	39.9	44.7	46.1	45.1
여자	20~24세	193.8	85.7	48.3	48.9	44.4	37.3	30.7
	25~29세	149.1	164.2	146.5	158.0	167.6	156.0	144.0
	30~34세	23.5	38.1	57.3	62.4	68.2	69.3	70.5
	35~39세	7.3	16.8	22.1	22.7	25.0	25.5	25.0

위에서 보는바와 같이 총혼인중 고연령층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평균 혼인연령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

〔그림 3-2〕 평균 초혼연령추이: 1990~2009



〈표 3-3〉 평균 초혼연령 및 재혼연령 추이: 1990~2009

연도	평균초혼연령		전년차		연도	평균재혼연령		전년차	
	남편	아내	남편	아내		남편	아내	남편	아내
1990	27.8	24.8			1990	38.8	34.0		
1991	27.9	24.8	0.12	0.06	1991	39.1	34.3	0.27	0.31
1992	28.0	24.9	0.10	0.09	1992	39.3	34.5	0.23	0.23
1993	28.1	25.0	0.08	0.08	1993	39.5	34.7	0.18	0.20
1994	28.2	25.1	0.12	0.13	1994	39.7	35.0	0.18	0.23
1995	28.4	25.3	0.15	0.18	1995	40.4	35.6	0.70	0.58
1996	28.4	25.5	0.04	0.13	1996	40.2	35.5	-0.23	-0.08
1997	28.6	25.7	0.19	0.26	1997	40.5	35.9	0.33	0.47
1998	28.8	26.0	0.24	0.31	1998	41.6	36.9	1.10	0.91
1999	29.1	26.3	0.24	0.27	1999	42.1	37.5	0.54	0.61
2000	29.3	26.5	0.21	0.20	2000	42.1	37.5	-0.08	-0.01
2001	29.6	26.8	0.27	0.29	2001	42.1	37.6	0.01	0.10
2002	29.8	27.0	0.22	0.23	2002	42.1	37.9	0.07	0.30
2003	30.1	27.3	0.37	0.26	2003	42.8	38.3	0.65	0.45
2004	30.5	27.5	0.39	0.25	2004	43.8	39.2	0.99	0.90
2005	30.9	27.7	0.34	0.20	2005	44.1	39.6	0.33	0.36
2006	31.0	27.8	0.09	0.07	2006	44.4	39.7	0.32	0.16
2007	31.1	28.1	0.15	0.30	2007	44.8	40.1	0.39	0.36
2008	31.4	28.3	0.27	0.23	2008	45.0	40.3	0.17	0.23
2009	31.6	28.7	0.23	0.39	2009	45.7	41.1	0.70	0.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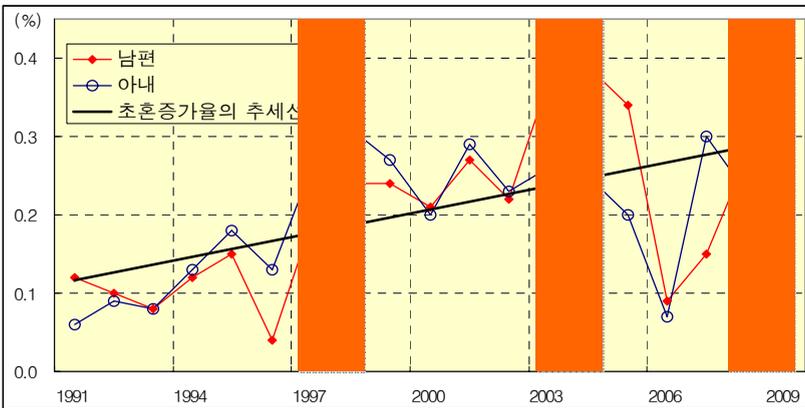
혼인연령이 상승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교육이 혼인시기에 영향을 미친다. 교육정도가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혼인이 늦춰지게 된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 진학율이 80년대 이미 99% 가까이 되면서 혼인연령이 상당히 상승하였으나, 80년대까지만 해도 대학진학률은 35%정도 수준이었다. 그러나 1992년 이후 대학진학률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이것은 혼인연령 상승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3] 대학진학률 추이: 1984~2009



또한 결혼연령의 상승 특히 초혼연령의 상승은 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즉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1997년과 1998년, 카드대란 문제가 있었던 2003년과 2004년, 미국발 경제위기 발생시기인 2008년과 2009년의 혼인연령의 상승폭이 다른 해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아래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3-4] 초혼연령의 전년대비증가율 추이: 1991~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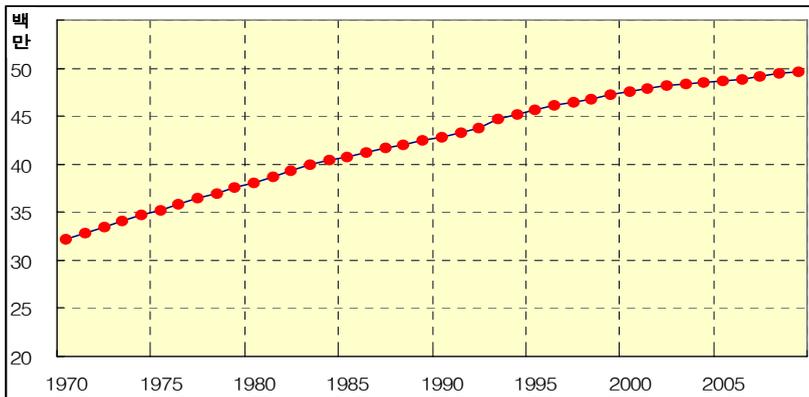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 혼인통계결과」

혼인은 15세 이상 남녀 인구에게서 발생하는 인구동태사건으로 혼인율이 높으면 장기적으로 혼인건수가 증가하겠으나, 단기적으로는 15세 이상인구가 적으면 혼인건수의 증가는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맥락에서 혼인상태별 인구를 검토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인구를 검토하였다.

제3절 연령별 인구구조

우리나라의 인구는 증가률이 둔화하기는 하였으나,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연령별로 보면 40대 후반~50대 초반의 베이비붐²⁾ 세대와 30대 후반~40대 초반 세대의 인구가 가장 많고 이 2개의 연령대를 중심으로 이 연령대에서 멀어 질수록 인구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림 3-5] 우리나라 연앙인구 추이: 1970~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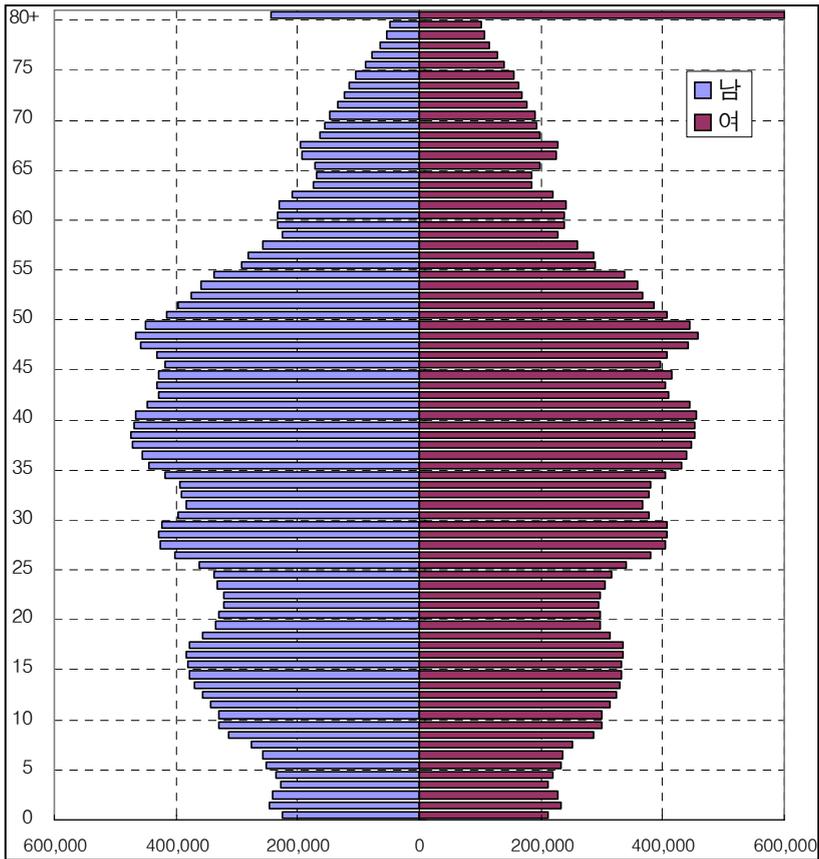


즉 연령별로 굴곡이 있기는 하나 저 연령층으로 갈수록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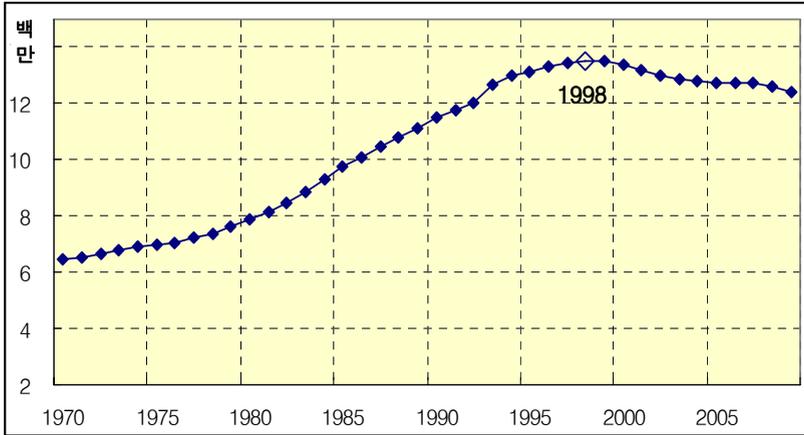
2) 베이비붐은 특정 시기에 출산을 집중적으로 많이 해서 출생아 수가 폭증하는 상황을 의미 하며 베이비붐에 해당하는 출생연도는 학자들마다 논란의 여지가 있고 일부 학자들은 베이비붐조차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미국은 2차대전 후 1944~1964년생을 일본은 단카이 세대라고 하여 1947~1949년생을 베이비부머라 하고, 우리나라는 출생연도 1955~1963년까지의 출생자를 베이비부머라 일반적으로 칭한다.

가장 혼인을 많이 하는 연령대인 25~39세 주 혼인연령층의 동향을 보면 1998년 1,349 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혼인율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당분간 혼인건수가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림 3-6] 연령별 2009년 인구 피라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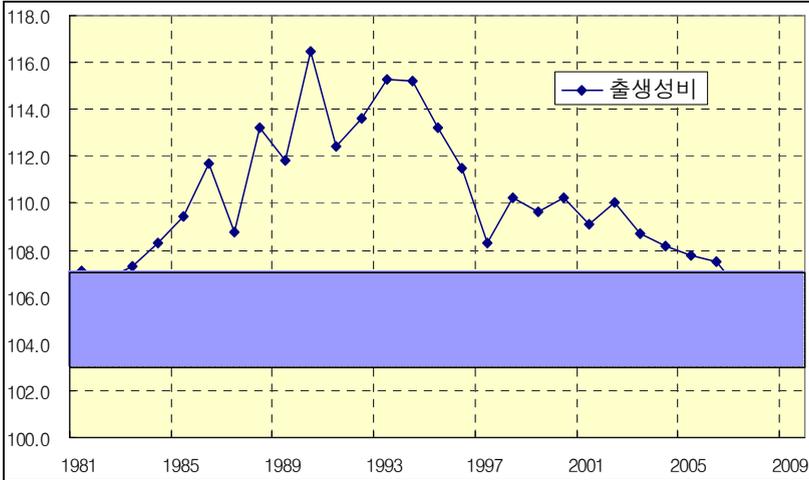


[그림 3-7] 주 혼인연령층(25~39세)인구 추이: 1970~2009



또한 혼인은 남자와 여자가 짝을 이루어야 하므로, 여자인구에 대한 남자인구의 크기인 성비는 혼인행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나라는 출생률이 급격히 줄어든 80년대 중반이후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2006년까지 출생성비는 정상성비수준보다 높았으나 2007년 이후 정상 성비수준(103~107)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과거 정상 성비수준보다 높은 시기에 태어난 사람들이 장성하여 결혼할 연령대에 도달한 지금 연령대별 성비를 보면 주 혼인연령층의 성비가 모두 100을 넘고 있으며, 평균혼인연령차(2009년 2.2세)를 감안한 2009년 남자 25세와 여자 23세 남자 26세와 여자 24세의 성비는 120이 넘고 있다.

[그림 3-8] 출생성비 추이: 1981~2009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 출생통계결과」

<표 3-4> 2009년 연령별 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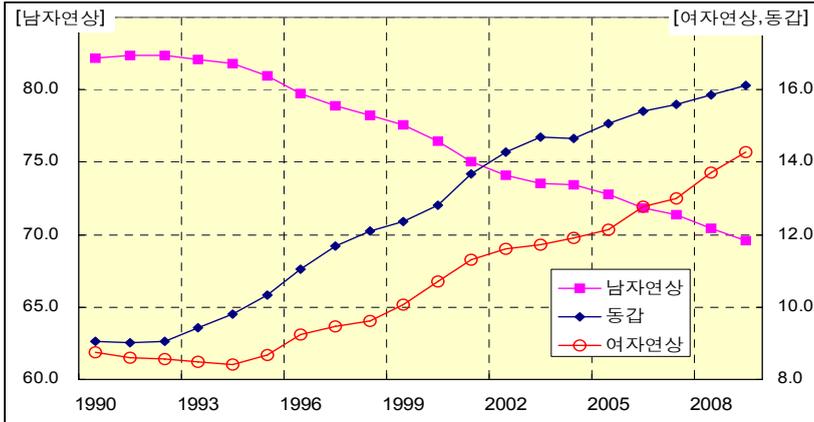
연령	성비	연령	성비
남녀-25세	106.3	남25-여23	118.8
남녀-26세	105.5	남26-여24	127.5
남녀-27세	105.3	남27-여25	125.0
남녀-28세	105.2	남28-여26	112.6
남녀-29세	103.8	남29-여27	104.8
남녀-30세	105.0	남30-여28	97.1
남녀-31세	104.5	남31-여29	94.0
남녀-32세	103.5	남32-여30	103.8
남녀-33세	103.8	남33-여31	107.8
남녀-34세	103.7	남34-여32	110.8
남녀-35세	103.2	남35-여33	116.8
남녀-36세	103.7	남36-여34	112.5
남녀-37세	105.4	남37-여35	109.4
남녀-38세	104.7	남38-여36	108.4
남녀-39세	103.6	남39-여37	104.7

자료: 행정안전부, 「2009년 주민등록 연앙인구」

이와 같이 주 혼인연령대의 성비가 높아지고 남녀간 혼인패턴이 달라지면서 남자연상부부의 혼인은 감소하고, 여자연상 및 동갑부부의 혼인이 증

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며, 1990년대 중반이후 국제결혼이 급격히 증가하게 된 것도 주 결혼연령층 성비 불균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3-9] 남녀의 연령차별 혼인 구성비 추이: 1990-2009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 혼인통계 결과」

제4절 혼인상태별 인구

인구를 혼인상태에 따라 미혼, 유배우, 이혼, 사별 등 4가지 상태로 분류할 수 있다. 이중 출산은 유배우자에게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유배우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인 유배우율은 출산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혼인상태별 인구 구성비를 보면 저 연령층에서는 미혼인구가 대부분이나 25세를 기점으로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하여 35세 이후에는 그 감소속도가 현저히 줄어들고 45세 이후에는 그 구성비가 상당히 작아지나, 반대로 유배우 구성비는 25세를 기점으로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38세에 그 구성비가 정점을 기록하고 서서히 감소하다 60세 이후 다시 급격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사별은 60세 이후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나 이혼은 전체적으로 10% 이하로 그 비중이 낮다.

유배우인구의 5년 주기로 변동을 보면, 15세 이상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그 증가율의 크기만 다를 뿐 혼인상태별 인구도 모두 5년 전에 비해 증가하였다. 먼저, 이혼 및 사별인구는 이혼율의 증가 및 고령화의 영향으로 평균 인구증가율 이상으로 증가한데 반해 미혼인구는 미혼율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 연령층 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평균 15세 이상 인구증가율 수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유배우인구도 저 연령층의 만혼화 및 미혼화로 인한 혼인감소로 15세 이상 인구의 평균 증가율보다 낮게 증가하였다.

〈표 3-5〉 혼인상태별 인구총조사 인구: 1990~2005년

(단위: 명, %)					
	계	미혼	유배우	사별	이혼
혼인상태별 15세 이상 인구					
1990	32,286,708	10,662,083	19,054,992	2,320,761	248,872
1995	34,318,206	10,563,167	20,832,540	2,555,850	366,649
2000	36,346,533	10,935,461	22,032,389	2,673,674	705,009
2005	38,055,306	11,478,719	22,556,515	2,879,879	1,140,193
혼인상태별 15세 이상 인구의 5년전 대비 증감					
1995	2,031,498	-98,915	1,777,548	235,089	117,777
2000	2,028,327	372,294	1,199,849	117,824	338,360
2005	1,708,773	543,258	524,126	206,205	435,184
혼인상태별 15세 이상 인구의 5년전 대비 증감율					
1995	6.29	-0.93	9.33	10.13	47.32
2000	5.91	3.52	5.76	4.61	92.28
2005	4.70	4.97	2.38	7.71	61.73

이혼과 사별이 큰 폭으로 그 수가 증가하기는 하나 사별은 고 연령층이 대부분이고 이혼은 그 수가 적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작으므로 실제로 향후 출산에 영향을 많이 미칠 여자의 미혼율과 유배우율을 검토하였다.

여자의 미혼율은 전(全) 연령층에서 모두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연령별 유배우율은 1970년대 30대 초반의 경우 94.6%로 대부분 혼인을 하였으나, 지속적인 감소세인 유배우율의 감소폭이 특히 2000년 이후 확대되고

있으며 반대로 미혼율은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05년에는 78.2%만이 유배우자이고 미혼이 17.0%로 나타났다.

유배우율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연령층은 20대로 1970년에 20대 초반은 42.3%가 유배우자였으나, 2005년에는 20대 초반은 6.2%로 거의 혼인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20대 후반의 유배우율도 40.1%로 70년의 절반수준이며, 30대 후반의 경우에도 점차 감소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여자의 연령별 유배우율: 1970~2005년

(단위: %)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15~19세	2.8	2.6	1.7	0.8	0.5	0.8	0.7	0.4
20~24세	42.3	37.2	33.7	27.8	19.5	16.7	10.7	6.2
25~29세	88.4	86.8	84.9	80.9	77.3	69.9	59.1	40.1
30~34세	94.6	94.4	94.3	93.3	92.4	91.4	86.9	78.2
35~39세	92.0	93.2	93.4	93.3	92.8	92.2	90.7	86.8
40~44세	84.8	88.2	90.1	90.4	90.3	90.1	88.9	87.3
45~49세	76.8	79.1	83.1	85.9	86.1	86.4	86.1	84.9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표 3-7〉 여자의 연령별 미혼율: 1970~2005년

(단위: %)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15~19세	97.1	97.4	98.2	99.1	99.5	99.2	99.3	99.6
20~24세	57.2	62.5	66.1	72.1	80.5	83.3	89.1	93.7
25~29세	9.7	11.8	14.1	18.4	22.1	29.6	40.1	59.1
30~34세	1.4	2.1	2.7	4.2	5.3	6.7	10.7	19.0
35~39세	0.4	0.7	1.0	1.6	2.4	3.3	4.3	7.6
40~44세	0.2	0.3	0.5	0.7	1.1	1.9	2.6	3.6
45~49세	0.1	0.2	0.3	0.4	0.6	1.0	1.7	2.4

자료: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제5절 혼인종류별 혼인

혼인은 혼인종류에 따라 초혼과 재혼으로 나눌 수 있으며, 재혼은 다시

사별후 재혼과 이혼후 재혼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초혼은 혼인을 한번도 하지 않은 미혼에게서 발생하나 재혼은 한번 혼인을 한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서 발생하므로 발생하는 모수가 서로 다르고 재혼은 여러 단계를 거치며, 사회의 인식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면에서 초혼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

우리나라의 초혼은 소폭의 등락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재혼은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 초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82%정도이고 재혼이 18% 정도이다.

〈표 3-8〉 초혼 및 재혼 건수 및 구성비: 1990~2009년

연도	혼 인 건 수(명)				구 성 비(%)				
	계	남 자		여 자		남 자		여 자	
		초 혼	재 혼	초 혼	재 혼	초혼	재혼	초혼	재혼
1990	399,312	365,964	33,348	371,159	28,153	91.65	8.35	92.95	7.05
1991	416,872	382,543	33,685	386,590	29,639	91.91	8.09	92.88	7.12
1992	419,774	383,606	35,624	386,605	32,597	91.50	8.50	92.22	7.78
1993	402,593	365,703	35,478	366,875	34,265	91.16	8.84	91.46	8.54
1994	393,121	354,860	36,317	355,572	35,595	90.72	9.28	90.90	9.10
1995	398,484	355,988	39,838	355,824	39,843	89.94	10.06	89.93	10.07
1996	434,911	387,576	44,400	386,586	45,171	89.72	10.28	89.54	10.46
1997	388,960	345,907	41,405	343,468	43,799	89.31	10.69	88.69	11.31
1998	373,500	330,271	43,189	326,862	46,600	88.44	11.56	87.52	12.48
1999	360,407	313,648	46,273	309,382	50,508	87.14	12.86	85.97	14.03
2000	332,090	288,178	43,370	283,357	48,132	86.92	13.08	85.48	14.52
2001	318,407	270,891	46,739	265,162	52,374	85.29	14.71	83.51	16.49
2002	304,877	257,210	47,013	251,719	52,412	84.55	15.45	82.77	17.23
2003	302,503	251,441	49,988	245,729	55,585	83.42	16.58	81.55	18.45
2004	308,598	250,555	56,530	243,445	63,452	81.59	18.41	79.32	20.68
2005	314,304	252,508	59,662	245,226	66,587	80.89	19.11	78.65	21.35
2006	330,634	273,684	55,563	269,311	59,661	83.12	16.88	81.86	18.14
2007	343,559	285,413	57,144	280,738	61,883	83.32	16.68	81.94	18.06
2008	327,715	270,236	57,217	264,469	62,758	82.53	17.47	80.82	19.18
2009	309,759	255,751	53,770	250,674	58,825	82.63	17.37	80.99	19.01

1990년에 재혼은 총 혼인 중 7~8%정도 차지하였고 대부분이 초혼이었으나, 재혼건수가 점차 증가하여 2000년대에는 18~21%정도로 2배 이상 그 비중이 증가하였으며 남녀별 재혼건수를 보면 1995년 이후 여자 재혼건수가 남자재혼건수보다 많아졌다. 이는 이혼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연령별 인구구조 및 남녀의 혼인연령 때문에 생긴 남자초혼 여자재혼인 결혼이 증가한 것으로, 연령별 인구를 보면 저 연령층으로 내려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남녀의 혼인행태는 남자가 여자보다 평균 약 3세정도 연상이며 3세 차이 연령으로 본 남녀의 결혼성비를 보면 성비가 110을 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10%의 남자는 3세 이하 여자와 결혼할 수 없으므로 결혼을 하려면 재혼인 여자 또는 동갑 및 연상녀와 혼인을 하게 된다. 이렇듯 인구구조의 변화가 사람들의 혼인 행태를 바꾸고 여자의 재혼건수가 증가하게 되었다.

혼인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초혼은 출산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초혼건수의 지속적인 감소, 재혼비중의 증가 그리고 결혼이 지연되면서 초혼연령의 상승은 출산율의 하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초혼연령은 출산연령과 상관관계가 높³⁾ 초혼연령의 상승이 곧 첫째아의 출산연령 상승으로 연결되고 이것이 둘째아 이상으로 연결되어 영향을 미치므로 출산율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1990년 남자의 초혼연령은 27.8세, 여자는 24.8세였으나 연령상승이 계속되어 2009년 남자 31.6세 여자 28.7세로 약 4세 상승하였다.

3) 1981년 발생기준 혼인건수와 첫째아 출생이수의 상관계수가 0.9292이다

〈표 3-9〉 남·여별 평균 초혼연령 및 차이: 1990~2009년

(단위: 세)

연 도	남자	여자	차이(남자-여자)
1990	27.8	24.8	3.0
1995	28.4	25.3	3.0
2000	29.3	26.5	2.8
2001	29.6	26.8	2.8
2002	29.8	27.0	2.8
2003	30.1	27.3	2.8
2004	30.5	27.5	3.0
2005	30.9	27.7	3.2
2006	31.0	27.8	3.2
2007	31.1	28.1	3.0
2008	31.4	28.3	3.1
2009	31.6	28.7	2.9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 혼인통계 결과」

남자의 연령별 초혼을 보면 한국나이⁴⁾로 최빈수가 28세 및 30세인 경우는 있으나 29세는 없으며, 연령별 초혼건수를 비교해보면 28세가 최빈수일 때는 초혼건수가 28세 다음에 29세가 많으나, 최빈수가 28세에서 30세로 바뀌어 갈 때 29세의 초혼건수는 28세 및 30세보다 적어지면서 최빈수가 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은 여자에게서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한국에서는 29세에 결혼을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한국나이는 출생과 동시에 1살이 되고 해가 바뀌면서 1살씩 더해가는 방법으로 계산한다.

<표 3-10> 남자 초혼의 최빈값 및 최빈값의 혼인건수: 1960~1980년생

	초혼최빈값	최빈수	28세	29세	30세
60년 출생자	57,075	28세	57,075	50,904	48,487
61년 출생자	57,476	28세	57,476	52,253	48,148
62년 출생자	57,336	28세	57,336	50,989	50,827
63년 출생자	50,252	28세	50,252	45,182	47,169
64년 출생자	51,832	28세	51,832	48,575	44,063
65년 출생자	53,262	28세	53,262	44,383	44,338
66년 출생자	48,631	28세	48,631	41,880	45,259
67년 출생자	47,279	28세	47,279	42,821	43,730
68년 출생자	52,488	28세	52,488	44,814	46,145
69년 출생자	49,471	28세	49,471	40,694	45,288
70년 출생자	48,259	28세	48,259	38,921	42,991
71년 출생자	46,157	28세	46,157	36,604	41,399
72년 출생자	38,491	28세	38,491	31,817	37,670
73년 출생자	35,771	28세	35,771	28,273	35,156
74년 출생자	34,880	30세	32,455	26,013	34,880
75년 출생자	30,129	30세	26,861	22,785	30,129
76년 출생자	31,236	31세	26,128	19,936	31,015
77년 출생자	33,361	30세	23,242	21,022	33,361
78년 출생자	30,114	30세	21,212	21,405	30,114
79년 출생자	31,709	30세	26,429	21,827	31,709
80년 출생자	22,905	30세	22,785	21,447	22,905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 혼인통계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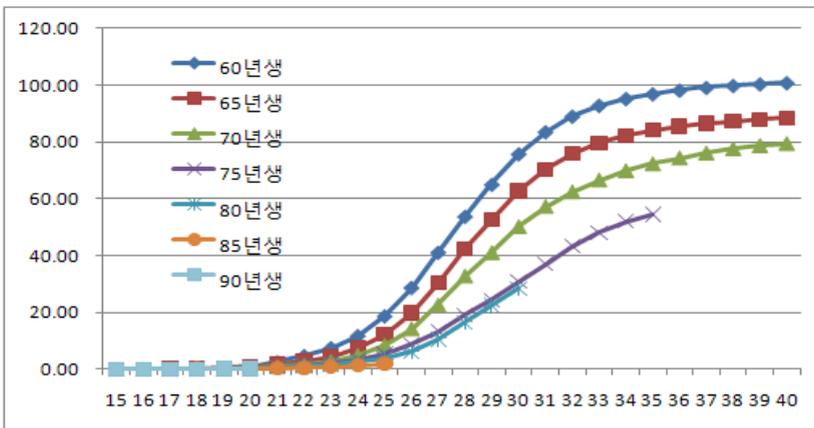
또한 남성의 최빈값의 혼인건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각 출생연도별 혼인진도율을 보면 1960년대 출생자는 한국나이로 28살까지 53.8%가 혼인을 하나 1965년생은 32살까지 52.5%가 혼인을 하여 혼인연령이 상승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 혼인누적비율이 50%를 넘은 1975년생은 35세에 겨우 54.5%로 절반이상이 결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후 출생한

남자들은 현재 연령까지의 혼인누적비율을 보면 이전 출생자보다 낮아 더 늦게 결혼할 것으로 보인다.

〈표 3-11〉 남자의 출생코호트별 누적 초혼비율: 1960~1990년생

	20세	25세	28세	29세	30세	35세
60년생	0.72	18.67	53.78	65.07	75.82	96.98
65년생	0.91	12.13	42.43	52.54	62.64	84.18
70년생	0.40	8.45	32.83	41.07	50.16	72.31
75년생	0.43	5.49	19.11	24.18	30.88	54.52
80년생	0.43	3.91	16.55	22.30	28.43	
85년생	0.18	1.79				
90년생	0.07					

〔그림 3-10〕 남자의 출생연도별 연령별 혼인 누적비율: 1960~1990년생



제6절 외국인과의 혼인

외국인과의 혼인은 1990년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2년 이후 급격하게 증가하여, 2004년 및 2005년 혼인건수를 최저치에서 끌어올리는 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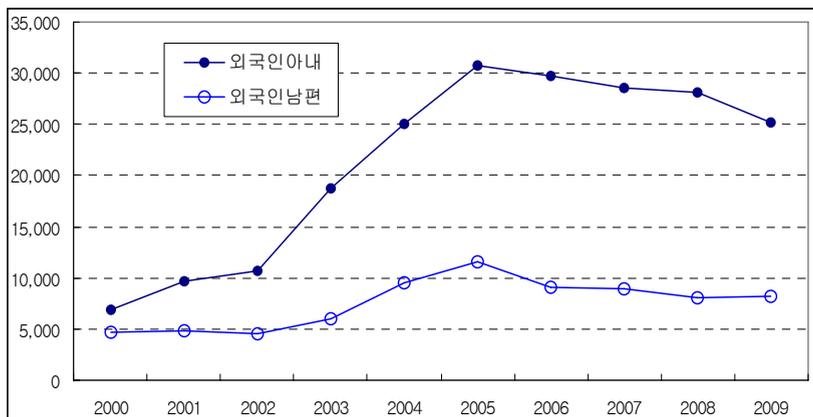
할을 하였으나, 2006년부터 외국인과의 혼인이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농어촌지역에서 그 비중이 높긴 하나, 총 외국인과의 혼인건수는 공장이 많은 인천 및 경기도가 많다. 총혼인건수에 대한 외국인과의 혼인 비중은 2000년 3.5%에서 증가하여 2005년 13.5%로 정점을 보인 후 최근 다소 둔화되어 2009년 10.8% 수준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과의 혼인이 증가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인구학적으로 볼 때 주 혼인연령층의 성비가 높아지면서 외국인 남자보다 외국인 여자와의 결혼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3-12〉 외국인과의 혼인추이: 2000~2009

	2000	2002	2003	2005	2006	2007	2008	2009
외국인과의 혼인(건)	11,605	15,202	24,776	42,356	38,759	37,560	36,204	33,300
외국인 아내	6,945	10,698	18,751	30,719	29,665	28,580	28,163	25,142
외국인 남편	4,660	4,504	6,025	11,637	9,094	8,980	8,041	8,158

[그림 3-11] 외국인과의 혼인추이: 2000~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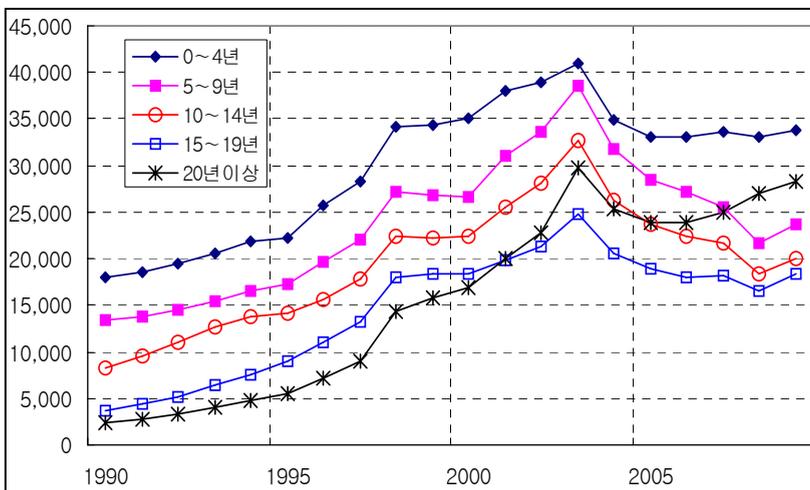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 혼인통계 결과」

제7절 동거기간별 이혼

혼인의 증감에 상관없이 이혼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1998년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후 2003년을 정점으로 이혼은 감소하는 추세로 바뀌었고 동거기간별로 검토해보아도 마찬가지로 추이를 보이고 있다. 동거기간이 0~4년인 경우 이혼이 가장 많고 다음이 5~9년으로 동거기간이 짧은 경우의 이혼이 전반적으로 많았으나, 2000년까지 동거기간별로 20년 이상 동거한 부부의 이혼건수가 가장 적었으나, 2001년 15~19년 동거한 부부의 이혼건수를 초과하게 되었고, 2005년에는 10~14년 동거부부의 이혼건수를 초과하였으며, 2008년에는 5~9년 동거한 부부의 이혼건수를 초과하였다. 특히 2000년 이후 20년 이상 동거한 부부의 이혼 즉, 황혼이혼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20년 이상 동거한 부부가 증가하면서 이혼건수가 증가하였으며, 20년 이상 동거한 부부인 경우 연령대가 높으므로 이혼에 대한 과거의 편견이 젊은 사람보다 많아 쉽게 이혼을 못 하였으나, 점차 이러한 의식이 사라져 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그림 3-12] 동거기간별 이혼추이: 1990~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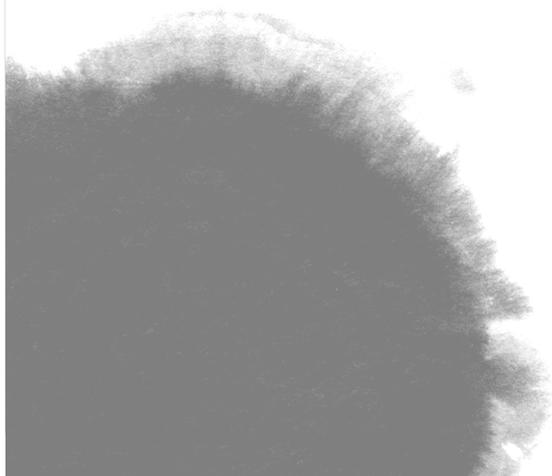
〈표 3-13〉 동거기간별 이혼추이: 1990~2009

	합 계 ¹⁾	0~4년	5~9년	10~14년	15~19년	20년 이상
1990	45,694	18,053	13,320	8,323	3,630	2,363
1991	49,205	18,521	13,785	9,582	4,393	2,810
1992	53,539	19,423	14,578	11,046	5,131	3,268
1993	59,313	20,597	15,507	12,643	6,339	3,977
1994	65,015	21,936	16,522	13,867	7,538	4,711
1995	68,279	22,272	17,179	14,052	8,974	5,571
1996	79,895	25,687	19,689	15,697	10,998	7,078
1997	91,160	28,235	22,115	17,775	13,315	8,931
1998	116,294	34,241	27,109	22,383	18,067	14,375
1999	117,449	34,347	26,748	22,198	18,306	15,816
2000	119,455	35,047	26,643	22,360	18,342	16,978
2001	134,608	38,003	31,014	25,611	19,924	19,963
2002	144,910	38,963	33,695	28,152	21,357	22,735
2003	166,617	40,925	38,515	32,664	24,800	29,711
2004	138,932	34,976	31,777	26,323	20,492	25,364
2005	128,035	33,144	28,516	23,621	18,887	23,867
2006	124,524	33,023	27,266	22,384	18,014	23,837
2007	124,072	33,670	25,493	21,662	18,252	24,995
2008	116,535	33,114	21,694	18,307	16,478	26,942
2009	123,999	33,718	23,636	19,986	18,398	28,261

주: 1) 미상 포함.

04

혼인상태에 따른 출산율





제4장 혼인상태에 따른 출산율

제1절 합계출산율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측되는 출생아 수이다. 즉, 여성의 총 출생자녀수를 의미하며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우리나라는 약 2.1명임)보다 낮으면 장기적으로 볼 때 인구가 감소하게 되고, 인구대체 수준인 2.1명 보다 크면 인구가 증가하게 된다. 저출산을 거론할 때 우리는 합계출산율이 2.1명 보다 얼마나 낮은 수준인지에 따라 그 문제의 심각성을 논한다. 그 이유는 합계출산율의 수준이 2.1명보다 낮을수록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인 인구의 고령화 및 감소현상 등이 더 빠르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합계출산율은 향후 인구의 수준 및 인구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예측하는 판단지표이며 이의 정확한 측정만이 우리의 미래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나타내는 등 저출산의 문제가 다른 나라보다 심각한 만큼 더욱 더 합계출산율의 정확한 측정 및 이해가 있어야 한다.

출산율의 추세는 개개인의 선택인 동시에 출산의 결과이며, 총 출생자녀수와 출산연령은 출산율을 결정하는 2가지 중요한 요인이다. 합계출산율이 출산의 주지표로 이용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각 개인이 ‘몇 명의 아이를 출산할 것인가?’ 즉, 총 출생자녀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합계출산율은 작성방법에 따라 코호트 합계출산율(Cohort Total Fertility Rate)과 기간합계출산율(Period Total Fertility Rate) 2가지로 나

눌 수 있다. 코호트 합계출산율은 합계출산율을 출생 코호트(5)별로 작성하는 방법이다. 즉 출생연도별로 하나의 코호트를 구성하여 이들 코호트별로 15세부터 49세까지의 출산을 누적하여 합계출산율을 작성하는 방법이다.

코호트 합계출산율은 총 출생자녀수를 잘 반영하고 출산연령에 변동이 생겨도 합계출산율의 변동없이 출산스케줄을 파악할 수 있는 이상적인 지표이다. 그러나 하나의 코호트가 완성되어 수치로 나오기 위해 35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하므로 자료의 시의성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기간합계출산율은 각 연도별 15~49세 각각의 연령별 출산율을 모두 합쳐서 작성하므로 매해 작성할 수 있어 코호트 합계출산율의 단점인 시의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기간합계출산율은 코호트 합계출산율에 비해 자료가 일찍 제공되어 이용하기 편리한 장점이 있으나, 서로 다른 코호트들의 출산율을 합치면서 생기는 문제점이 있다. 즉 기간합계출산율은 총 출생자녀수를 잘 나타내지 못하고 출산연령의 변화에 따라 과대 또는 과소하게 집계되며 출산스케줄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제2절 템포조정 합계출산율

최근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한 낮은 출산율에 템포효과가 더해지면서 더욱 낮은 합계출산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실질적의미의 합계출산율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진정한 의미의 합계출산율을 파악하기 위하여 템포효과를 제거하여야 한다. 템포효과란 개념은 출산연령의 변화가 없을 때 나타나는 출산율의 구성 비율 또는 평균출산연령의 이동으로 인한 부재로 출산이 발생한 기간이다.

템포효과에 대한 소개는 일찍부터 있어왔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템포효과를 언급하기 시작한 것은 봉가르트(Bongarrts)와 휘니(Feeney)(향후 B-F 방법이라 부름)가 1998년 소개한 논문(Bongarrts & Feeney, 1998, 2000)

5) 특정기간에 태어나거나 결혼한 사람들의 집단과 같이 통계상의 인자를 공유하는 집단

에서부터 시작한다.

봉가르트(Bongarrts)와 휘니(Feeney)는 출산율의 변화를 연령 및 출산순위 또는 총출생자녀수 변동 및 출산지연현상으로 인해 나타나고, 이 중 출산순위와 연령에 따라 템포효과를 총출생자녀수 변동으로 인한 현상으로부터 분리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것은 합계출산율에서 총 출생자녀수와 출산연령을 분리하여 이중 출산연령으로 인한 부분 즉 출산지연으로 인한 영향부분을 제거한 조정 합계출산율 작성을 제안했다.

B-F 조정 기간합계출산율(B-F Adjusted period TFR)

$$= \sum_j [TFR_j / (1 - r_j)]$$

여기서 r_j 는 출산순위별 평균출산연령의 이동크기이다. 이것은 출산연령이 늘어난 기간만큼 출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나머지 기간 즉 템포효과 만큼의 기간만 출산하였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를 실제 우리나라 자료에 적용해 보았다. 기간합계출산율보다 B-F조정 합계출산율이 1994년 이후 평균 0.369명 많았으며, 기간합계출산율이 최근 낮아지면서 B-F조정 합계출산율과의 차이도 점차 감소하였다. 또한 조정 합계출산율이 실제 총 출생자녀수라 가정하면 출산연령의 지연으로 인해 평균 21.7% 합계출산율을 하락시켰다.

우울의 곱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혼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즉, 유배우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을수록 합계출산율이 감소하는 원인이 될 것이며, 유배우자들의 출산율이 높으면 이것이 합계출산율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다. 요즘과 같이 혼인연령이 늦어지면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이 같다고 하더라도 연령별 유배우율이 낮아져 합계출산율이 작아지게 된다.

이와 같이 유배우출산율과 유배우율의 영향을 분리하여 볼 수 있으나, 이것은 연령별 출산율에 한하여 가능한 것이고, 유배우 출산수준을 별도로 보기는 어렵다. 위 식에서 유배우출산율과 유배우율이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히 나타나나 그 크기를 알기 위해서는 유배우 합계출산율의 작성이 필요하다.

유배우출산이 대부분인 우리나라에서 혼인상태는 출산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특징이다. 그러나 합계출산율로는 유배우출산율을 별도로 분리해내지 못하므로 유배우자의 출산수준을 알기 위해서는 혼인과 관계가 적은 미혼, 이혼, 사별인구를 제외하고 유배우인구를 이용하여 유배우 합계출산율을 산출할 필요가 있다. 유배우 합계출산율은 합계출산율 산출과 마찬가지로 먼저 연령별 유배우출산율을 산출하여야 한다. 연령별 유배우출산율은 출생아수를 유배우인구로 나누어 다음과 같은 식으로 작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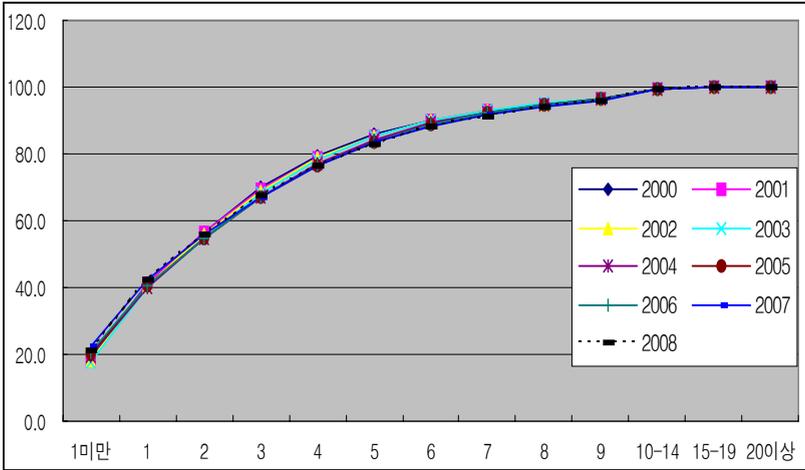
$$\text{연령별 유배우출산율 } ASMFR_i = \frac{b_i}{m_i}$$

(단, b_i 는 모의연령이 i 인 출생아수, m_i 는 i 연령의 유배우 여자인구수)

이렇게 구한 연령별 유배우출산율을 15세에서 49세까지 모두 합치면 유배우 합계출산율이 된다.

$$\text{유배우합계출산율 } TMFR = \sum_{i=15}^{49} ASMFR_i = \sum_{i=15}^{49} b_i/m_i$$

[그림 4-1] 동거기간별 출생 구성비: 2000~2008년



제4절 유배우상태 보정 합계출산율

유배우 합계출산율이 유배우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측되는 출생아 수 즉, 유배우자의 총 출생자녀수를 의미하지 못하므로 이를 위해 유배우자의 총출생자녀수를 의미하는 지표를 시산하고자 한다. 먼저 이 지표의 명칭을 유배우인구를 보정하여 작성하게 되므로 ‘유배우상태 보정 합계출산율’이라 하겠다.

유배우상태 보정 합계출산율 작성을 위해 먼저 보정 유배우인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유배우상태 보정인구에 대해 2가지 가정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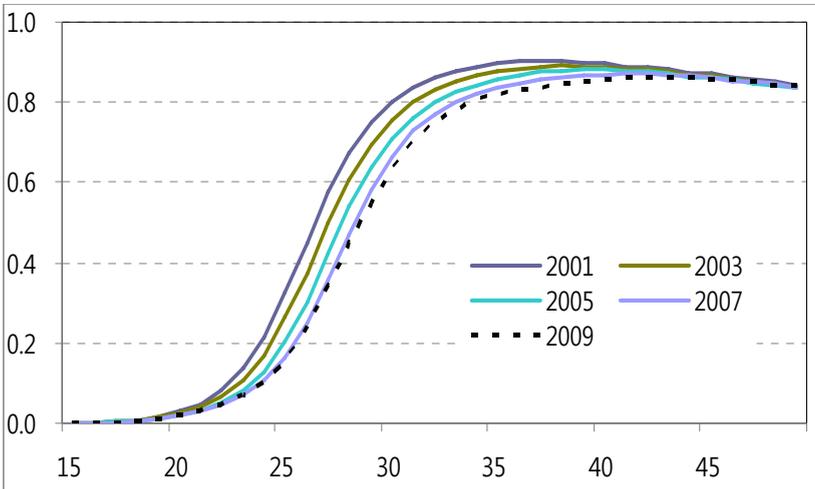
첫 번째는 미혼인구가 향후 유배우자로 변경될 것으로 보고, 유배우인구로 간주하나, 이때 유배우율이 가장 높은 연령보다 적은연령 그룹의 미혼에 대해 유배우율이 가장 높은 연령의 비율만큼만 유배우자가 된다고 가정한다. <표 4-3>에 의하면, 2000년에는 37세의 유배우율이 91.1%로 가장 높았으므로 15-36세 연령의 91.1%를 유배우자로 보고 연령별 유배우인구를 추정하였다.

저 연령층은 실제로 유배우자 비율이 낮으나 유배우상태 보정 합계출산율 산출을 위해서는 예비 유배우자를 추정하여야 한다. 즉 전체 유배우자는 장기적으로 볼 때 유배우자로 참여할 예정이므로 이들을 유배우 인구로 간주하고 이들을 분모로 합계출산율을 추정한다. 유배우율은 200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고 있고 정점도 2000년에는 37세였으나, 2009년에는 43세로 6세 많아졌다. 이러한 추세가 향후에도 계속된다면 유배우상태 보정 합계출산율이 높아도 합계출산율의 증가가 어려울 것이다.

〈표 4-3〉 유배우율의 정점값 및 정점 추이: 2000~200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정점값	0.911	0.904	0.897	0.890	0.885	0.881	0.876	0.871	0.866	0.862
정점	37세	37세	37세	38세	39세	40세	41세	41세	42세	43세

〔그림 4-2〕 유배우 인구비율: 2001~2009년



두 번째는 유배우율이 가장 높은 연령보다 큰 연령에서의 이혼 및 사별자는 제외하였다. 향후 이를 고려하여 추정할 필요는 있겠으나, 사망률이

낮아지면서 최근 사별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15-49세 인구 중 이혼 및 사별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3%(통계청, 2005) 이내로 낮아 이를 제외하였다.

이상의 2개의 가정을 바탕으로 아래의 단계에 따라 유배우상태 보정 합계출산율을 작성하였다.

1단계: 유배우인구 추정

- ① 유배우율이 정점을 나타내는 연령보다 적은 연령의 유배우율을 정점의 유배우율과 같은 것으로 가정한다(각 세별 유배우 인구 비율은 부록 1 참조).
- ② 연령별 여자인구에 ①에서 추정된 유배우율을 곱하여 유배우 인구를 산출한다.

2단계: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 작성

- 추정된 연령별 유배우인구로 모의 연령별 출생아수를 나누어 연령별 출산율을 산출한다.

$$TFR_i = Mr_i = \frac{b_i}{m_i}$$

(Mr_i : 연령별 유배우 출산율, m_i : 추정 유배우인구, b_i : 출생아수)

3단계: 15~49세 까지의 연령별 출산율을 모두 합친다.

$$TFR = \sum_{i=15}^{49} Mr_i = \sum_{i=15}^{49} \frac{b_i}{m_i}$$

2009년 유배우 상태 보정 합계출산율은 시산결과 1.33명이다. 즉 유배우자 1명이 평생 1.33명의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다. 2009년 합계출산율은 1.15명이므로 유배우 상태 보정 합계출산율과 합계출산율의 차이는 0.18명이다. 모든 여자가 결혼을 한다고 가정하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33명이 될 수 있으나, 미혼인구 등의 영향으로 합계출산율이 0.18명 낮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유배우자의 출산율은 2002년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유배우상태 보정 합계출산율과 합계출산율의 차이는 1995년 0.13명에서 2009년 0.18명으로 증가하고 있어 향후 유배우 상태 보정 합계출산율이 다소 상승하더라도 합계출산율의 상승은 어려워 보이며, 유배우상태 합계출산율의 수준이 인구대체수준의 출산율인 2.1명과는 여전히 차이가 커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표 4-4〉 합계출산율 및 유배우상태 보정 합계출산율: 1995~2009년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합계출산율(TFR)	1.63	1.47	1.29	1.16	1.18	1.15	1.08	1.12	1.25	1.19	1.15
유배우상태 보정 TFR	1.76	1.61	1.44	1.30	1.33	1.30	1.22	1.28	1.44	1.38	1.33
유배우상태 보정 TFR-TFR	0.13	0.14	0.14	0.14	0.15	0.15	0.15	0.16	0.19	0.18	0.18

유배우상태 보정 합계출산율은 합계출산율과 마찬가지로 템포효과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유배우상태 보정 합계출산율이 엄밀한 의미의 유배우자의 총 출생자녀수를 의미하기 위해서는 템포조정이 필요하다.

평균출산연령을 이용하여 유배우상태 보정합계출산율을 보정한 결과 2009년에 1.72명 수준이며 출산순위별로 보면 첫째아의 출산비율이 99.8%이고 둘째아의 출산비율은 58.4%이다. 이는 유배우자는 대부분 1명의 아이를 낳으나, 둘째아를 낳는 유배우자는 절반정도 수준이고 나머지 절반은 총 출생자녀수가 1이며, 셋째아 이상 낳는 유배우자가 13.9%이다.

〈표 4-5〉 유배우 조정 TFR: 1995~2009년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조정 유배우 TFR	1.8988	2.0960	1.8561	1.7047	1.7259	1.8275	1.6170	1.6243	1.7509	1.6693	1.7217
1아	0.8852	1.0591	0.9541	0.8449	0.9028	0.9618	0.8638	0.8477	0.9401	0.8853	0.9980
2아	0.8386	0.8466	0.7220	0.7099	0.6855	0.7220	0.6164	0.6445	0.6707	0.6350	0.5842
3아 이상	0.1750	0.1903	0.1800	0.1499	0.1375	0.1437	0.1368	0.1320	0.1402	0.1490	0.1394

제5절 미혼인구 증가와 합계출산율

미혼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조정 유배우상태 보정 합계출산율과 조정합계출산율의 차이를 구해보았다. 그 결과, 1995년 0.14명 이었으나, 2009년 0.24명으로 증가하였다. 즉, 미혼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다.

〈표 4-6〉 템포조정 유배우상태 보정 합계출산율과 합계출산율의 차: 1995~2009년

(단위: 명)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0.14	0.19	0.18	0.18	0.19	0.21	0.20	0.20	0.23	0.22	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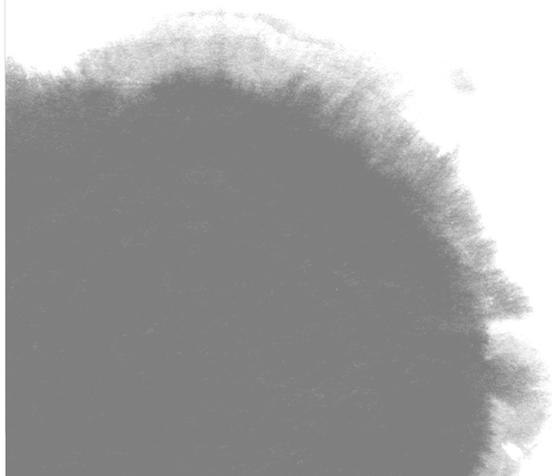
〈표 4-7〉 출산순위별 유배우상태 보정 TFR 및 유배우 조정 TFR: 1995~2009년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유배우 TFR	1.76	1.61	1.44	1.30	1.33	1.30	1.22	1.28	1.44	1.38	1.33
1아	0.8407	0.7724	0.6985	0.6522	0.6780	0.6865	0.6523	0.6862	0.7868	0.7372	0.7048
2아	0.7631	0.6718	0.5961	0.5236	0.5279	0.4988	0.4612	0.4821	0.5222	0.5150	0.5077
3아 이상	0.1558	0.1669	0.1416	0.1249	0.1197	0.1187	0.1108	0.1142	0.1267	0.1246	0.1204
조정 유배우 TFR	1.8988	2.0960	1.8561	1.7047	1.7259	1.8275	1.6170	1.6243	1.7509	1.6693	1.7217
1아	0.8852	1.0591	0.9541	0.8449	0.9028	0.9618	0.8638	0.8477	0.9401	0.8853	0.9980
2아	0.8386	0.8466	0.7220	0.7099	0.6855	0.7220	0.6164	0.6445	0.6707	0.6350	0.5842
3아 이상	0.1750	0.1903	0.1800	0.1499	0.1375	0.1437	0.1368	0.1320	0.1402	0.1490	0.1394
TFR	1.63	1.47	1.30	1.17	1.18	1.15	1.08	1.12	1.25	1.19	1.15
1아	0.7807	0.7033	0.6310	0.5847	0.6036	0.6075	0.5736	0.6010	0.6851	0.6385	0.6070
2아	0.7085	0.6118	0.5386	0.4695	0.4700	0.4414	0.4055	0.4222	0.4547	0.4460	0.4380
3아 이상	0.1445	0.1519	0.1278	0.1120	0.1065	0.1050	0.0974	0.1000	0.1103	0.1079	0.1040
STD TFR	1.76	1.91	1.68	1.53	1.54	1.62	1.42	1.42	1.52	1.45	1.48
1아	0.8219	0.9644	0.8620	0.7575	0.8038	0.8512	0.7595	0.7424	0.8185	0.7668	0.8595
2아	0.7786	0.7709	0.6523	0.6365	0.6103	0.6389	0.5419	0.5644	0.5839	0.5500	0.5041
3아 이상	0.1622	0.1732	0.1625	0.1343	0.1224	0.1272	0.1203	0.1156	0.1221	0.1291	0.1205

조정 유배우상태 보정 합계출산율이 2009년 1.72명이고 미혼 등으로 인한 영향이 0.24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수준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출산율의 수준은 아니다. 장기적으로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합계출산율의 수준인 인구대체수준의 출산율 2.1명이 되려면 유배우자는 미혼의 영향으로 낮아진 합계출산율을 올리기 위해 유배우자 1명이 2.44명의 아이를 낳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유배우자가 2명 내지 3명의 아이를 모두 낳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또한 미혼인구의 비율이 현재보다 감소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사람들의 행동 및 환경이 획기적으로 변하지 않는 한 인구문제는 오차의 범위 내에서 움직이게 되므로 저출산 문제는 쉽게 풀릴 것 같지 않다.

05

결혼행태와 출산율의 상관성 분석





제5장 결혼행태와 출산율의 상관성 분석

제1절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1. 결혼의향 비율

교육수준별 결혼의향은 남성의 경우 교육수준이 높아질 수록 결혼의향은 높아지는 반면, 여성의 경우 대학원 이상의 고학력 소지자인 경우 결혼의향은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남성의 경우 30대 초반까지는 높은 결혼의향 수준을 보이거나 30대 후반에는 결혼의향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성의 경우에는 이러한 경향이 20대까지 해당되거나 30대 초반에도 20대에 비해 결혼의향 수준이 감소하고 있고, 30대 후반에는 결혼의향의 비율이 40%대로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 교육수준별 결혼의향이 있는 비율

(단위: %)

	남자					여자					계
	계	20~24	25~29	30~34	35~44	계	20~24	25~29	30~34	35~44	
고졸이하	69.5	70.3	77.9	79.3	48.9	68.8	76.5	77.7	61.0	39.4	69.2
전문대졸	75.7	76.2	81.9	78.6	51.9	74.7	78.4	79.3	64.7	41.9	75.2
대졸	78.3	78.5	81.3	82.3	49.7	74.3	76.6	76.8	67.3	41.9	76.3
대학원 이상	83.8	57.3	84.8	86.3	85.6	63.2	88.1	64.4	74.9	12.6	73.8
계	75.6	76.8	80.8	80.6	51.1	73.2	77.1	77.2	65.2	40.0	74.4

전반적으로 실업자의 결혼의향이 낮으며, 취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의 경우 취업자와 실업자의 결혼의향의 차이가 11.8% 포인트나 되어 매우 높은 반면, 여성의 경우 동 비율이 1.9% 포인트에 불과하여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남성이 가족의 부양자로서 취업이 결혼의향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30대 후반의 여성의 경우 비경제활동인구인 경우 결혼의향이 16.4%에 불과하여 매우 낮은 수준에 있었다.

〈표 5-2〉 취업상태별 결혼의향이 있는 비율

(단위: %)

	남자					여자					계
	계	20~24	25~29	30~34	35~44	계	20~24	25~29	30~34	35~44	
취업자	78.2	83.6	83.0	83.9	55.4	72.3	77.2	77.8	66.5	44.2	75.3
실업자	66.4	72.5	73.2	65.4	36.9	70.4	74.8	76.5	49.3	35.0	68.0
비경제활동인구	75.4	75.8	79.3	75.5	36.5	75.3	77.7	73.6	64.0	16.4	75.4
계	75.6	76.9	80.8	80.6	51.1	73.2	77.2	77.2	65.2	39.5	74.5

거주지역별로 결혼의향을 보면, 시지역이 읍·면지역에 비해 결혼의향을 나타내는 비율이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녀 모두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읍·면 거주 30대 후반의 여성의 결혼의향이 17.8%로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 거주지역별 결혼의향이 있는 비율

(단위: %)

	남자					여자					계
	계	20~24	25~29	30~34	35~44	계	20~24	25~29	30~34	35~44	
시	75.8	76.5	81.0	81.0	51.4	73.4	77.7	77.2	65.0	41.0	74.7
읍·면	73.6	80.2	78.5	77.8	49.6	70.7	71.7	77.8	69.3	17.8	72.4
계	75.6	76.8	80.8	80.6	51.1	73.2	77.1	77.2	65.2	39.5	74.4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경우 부모와 비동거인 경우에 비해 소폭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녀 모두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부모와 동거하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의 경우 남성과 달리 비동거의 경우보다 결혼의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 부모와의 동거여부별 결혼의향이 있는 비율

(단위: %)

	남자					여자					계
	계	20~24	25~29	30~34	35~44	계	20~24	25~29	30~34	35~44	
동거	75.9	75.0	80.4	82.7	53.8	73.8	76.8	77.6	65.2	31.7	74.9
비동거	74.3	89.1	82.1	73.3	46.3	70.6	79.7	75.5	65.3	51.2	72.6
계	75.6	76.8	80.8	80.6	51.1	73.2	77.1	77.2	65.2	39.5	74.4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결혼의향이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율은 남녀 모두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 30대 후반 여성의 경우 남성과 달리 도움을 받지 않은 경우에 비해 결혼의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5〉 부모로부터의 도움여부별 결혼의향이 있는 비율

(단위: %)

	남자					여자					계
	계	20~24	25~29	30~34	35~44	계	20~24	25~29	30~34	35~44	
받음	76.6	77.4	80.3	76.3	52.0	74.2	76.0	77.2	67.4	31.2	75.4
안받음	74.1	74.1	81.4	83.3	50.7	71.4	81.9	77.2	64.3	43.2	72.8
계	75.6	76.8	80.8	80.6	51.1	73.2	77.1	77.2	65.2	39.5	74.4

부모의 이혼 경험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결혼의향이 소폭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비율은 남녀 모두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5-6〉 부모의 이혼 경험 여부별 결혼의향이 있는 비율

(단위: %)

	남자					여자					계
	계	20~24	25~29	30~34	35~44	계	20~24	25~29	30~34	35~44	
없음	76.2	77.1	82.5	80.9	50.9	74.1	78.0	78.5	65.5	41.5	75.2
있음	67.9	73.5	61.7	74.7	57.6	62.6	68.5	61.0	61.9	0.0	65.2
계	75.6	76.8	80.8	80.6	51.1	73.2	77.1	77.2	65.2	39.5	74.4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는 가치관에 찬성을 하는 경우 결혼의향이 높게 나타났으며, 남녀 모두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5-7〉 가치관(결혼은 개인보다 가족간의 관계가 우선해야 한다) 찬성여부별 결혼의향비율

(단위: %)

	남자					여자					계
	계	20~24	25~29	30~34	35~44	계	20~24	25~29	30~34	35~44	
반대	67.2	67.5	75.1	75.7	32.5	67.3	74.3	63.0	60.2	46.3	67.3
찬성	77.9	79.7	82.2	81.8	55.6	75.2	78.2	82.2	66.7	37.3	76.6
계	75.6	76.8	80.8	80.6	51.1	73.2	77.1	77.2	65.2	39.5	74.4

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는 가치관에 찬성하는 남성의 경우 반대하는 남성에 비해 결혼의향이 높지만, 여성은 이러한 가치관에 찬성하는 경우 오히려 결혼의향이 소폭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대 후반의 여성의 경우 이러한 가치관에 찬성하는 경우 결혼의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8〉 가치관(남녀가 결혼할 생각이 있다면 먼저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다)
찬성여부별 결혼의향비율

(단위: %)

	남자					여자					계
	계	20~24	25~29	30~34	35~44	계	20~24	25~29	30~34	35~44	
반대	73.9	74.6	81.3	77.4	46.2	74.1	78.0	78.5	68.2	43.5	74.0
찬성	76.8	78.3	80.4	83.0	54.5	72.3	76.4	76.0	62.4	34.2	74.8
계	75.6	76.8	80.8	80.6	51.1	73.2	77.1	77.2	65.2	39.5	74.4

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가치관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경우가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녀 모두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여성보다는 남성에서 이러한 경향이 보다 뚜렷한 것으로 보인다.

〈표 5-9〉 가치관(결혼과 관계없이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 찬성 여부별 결혼 의향 비율

(단위: %)

	남자					여자					계
	계	20~24	25~29	30~34	35~44	계	20~24	25~29	30~34	35~44	
반대	71.3	71.0	77.9	80.4	45.2	72.2	76.1	78.3	60.7	37.7	71.8
찬성	78.2	80.1	82.5	80.7	55.6	74.0	78.0	76.2	70.2	41.3	76.4
계	75.6	76.8	80.8	80.6	51.1	73.2	77.1	77.2	65.2	39.5	74.4

이러한 결과를 요약하면, 결혼의향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낮아지며, 성별로는 남성이 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별로는 고졸이 가장 낮고, 점차 높아지다가 대학원 졸 이상에서 다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경제활동상태별로는 실업자가 67.9%로 낮은 반면, 취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는 각각 75.3%와 75.4%로 높은 수준이었다. 읍·면 거주자가 동거주자에 비해 결혼을 하려는 비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부모와의 비동거,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을 경우 결혼을 하려는 비율이 낮으며, 부모가 이혼을 경험한 경우 혼인의향은 65.0%로 낮게 나타났다. 한편, 가치관 변수로서 결혼은 개인보다 가족간의 관계가 우선이라고 생각할수록 혼인을 하려

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또한 혼전동거와 결혼 무관 성관계에 찬성할수록 혼인을 하려는 의향은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혼의향에 대하여 다변량분석을 통하여 결혼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변수는 다음과 같다.

〈표 5-10〉 결혼의향 분석에 사용된 변수

변수	변수명	부호화
종속변수	wantm	1=결혼할 생각이 있다, 0=없다
독립변수	age	연령
	sex	1=여성, 0=남성
	emp	1=취업자, 0=기타
	unemp	1=실업자, 0=기타
	eupmyun	1=읍·면, 0=동지역
	coresid	1=부모와 비동거, 0=동거
	parhelp	1=부모 도움 안 받음, 0=받음
	pardiv	1=부모 이혼 경험 있음, 0=없음
	dap4	1=결혼에서 가족이 개인보다 우선, 0=아님
	dap11	1=혼전 동거 찬성, 0=아님
	dap12	1=결혼과 무관한 성관계 찬성, 0=아님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연령이 높아질수록 결혼의향은 낮아지고 있으며, 여성의 결혼의향은 남성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전반적으로 결혼의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하고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실업자인 경우 2변량 분석에서는 유의하게 결혼의향이 낮았으나, 다변량 분석에서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변수 중에서는 부모의 이혼 경험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결혼의향을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가치관 변수는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족이 개인보다 우선한다는

의견에 찬성하는 경우 반대하는 경우에 비하여 결혼의향이 높으며, 결혼과 무관하게 성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의견에 찬성하는 경우 반대하는 경우에 비하여 결혼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1〉 결혼의향을 종속변수로 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설명			모델 I	모델 II	모델 III
상수			3.485	3.632	3.140
개인 변수	age	연령	-.092***	-.095***	-.095***
	sex	성	-.328***	-.323***	-.286***
	edu	교육수준	.102*	.080	.086
	emp	취업자	.622***	.663***	.659***
	eupmyun	읍·면거주	-.098	-.109	-.109
	unemp	실업자	.032	.064	.049
가족 변수	coresid	부모동거		.067	.068
	parhelp	부모도움		-.085	-.111
	pardiv	부모이혼경험		-.568***	-.553***
가치관 변수	dap4	가족우선			.492***
	dap11	혼전 동거			-.218*
	dap12	결혼무관 성관계			.345***
-2log likelihood			3620.604	3605.692	3568.437

* p <.05 ** p <.01 *** p <.001

제2절 기혼부인의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혼부인의 연령별 총 출생아 수를 보면, 20대에는 평균 1명, 30대 초반은 평균 1.49명, 30대 후반의 경우 평균 1.83명, 40대 초반의 경우 1.84명으로서 평균 1.6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부인의 연령이 20대인 경우 자녀가 1명인 경우 42.6%로 가장 많았고, 30대 이후에는 2명의 자녀를 가진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혼부인의 경우 자녀의 수가 2명인 경우가 54.3%로 가장 많았으나, 1명 이하인 경우가 35.5%, 3명 이상인 경우가 11.2%로서 1명 이하인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5-12〉 연령별 총출생아수의 분포

(단위: %, 명)

	0	1	2	3	4	5	계	N	평균
20~29세	30.9	42.6	22.5	4.1	0.0	0.0	100.0	418	1.00
30~34세	12.6	35.3	43.0	8.7	0.2	0.1	100.0	827	1.49
35~39세	4.6	19.9	63.6	11.5	0.3	0.1	100.0	1,171	1.83
40~44세	3.2	21.3	64.4	10.4	0.6	0.2	100.0	1,170	1.84
계	9.0	26.5	54.3	9.6	0.3	0.1	100.0	3,586	1.66

한편, 기대되는 총 출생아 수란 기 출생한 자녀수에 임신한 경우 및 향후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를 모두 합한 것으로서 완결 출산력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대되는 총출생아수는 평균적으로 1.88명인 것으로 나타나 현존 자녀 수의 평균 1.66명에 비해 0.22명이 더 많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대되는 총 출생아수는 20대가 평균 1.65명으로서 현존 자녀수 1명에 비해 평균 0.66명을 더 기대하고 있었으며, 30대 초반인 경우 기대되는 총출생아수는 1.86명으로서 현존 자녀수 1.49명에 비해 평균 0.37명이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30대 후반의 경우 기대되는 총 자녀수는 1.96명으로서 기존의 자녀수 평균 1.83명에 비해 0.13명 증가에 그치고 있으며, 40대 초반인 경우 0.04명 증가로 큰 변화가 없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3〉 연령별 기대되는 총출생아수의 분포

(단위: %, 명)

	0	1	2	3	4	5	계	N	평균
20~29세	8.6	30.9	48.6	10.0	1.7	0.2	100.0	418	1.65
30~34세	2.8	25.6	56.6	13.1	1.6	0.4	100.0	825	1.86
35~39세	2.5	16.1	66.0	14.3	0.9	0.3	100.0	1,171	1.96
40~44세	2.5	20.8	64.4	11.1	0.9	0.4	100.0	1,171	1.88
계	3.3	21.5	61.3	12.5	1.1	0.3	100.0	3,585	1.88

교육수준별 총 출생이수의 분포를 보면, 고졸의 경우 1.74명으로 가장 많고,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표 5-14〉 교육수준별 총출생이수의 분포

(단위: %, 명)

	0	1	2	3	4	5	계	N	평균
중졸 이하	13.4	23.2	47.3	15.2	0.0	0.9	100.0	112	1.68
고졸	7.2	24.5	56.2	11.7	0.4	0.1	100.0	1,948	1.74
대졸	11.1	29.4	52.6	6.5	0.3	0.1	100.0	1,481	1.56
대학원 졸	11.4	31.8	50.0	6.8	0.0	0.0	100.0	44	1.55
계	9.0	26.6	54.3	9.6	0.3	0.1	100.0	3,585	1.66

한편 교육수준별로 기대되는 총 출생이수의 분포를 보면, 역시 고졸이 1.91명으로 가장 많고,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추세이다. 그러나 기대되는 총출생이수와 기존의 총출생이수의 차이가 0.28명으로서 가장 많은 추가 자녀를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집단은 대졸그룹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5〉 교육수준별 기대되는 총출생이수의 분포

(단위: %, 명)

	0	1	2	3	4	5	계	N	평균
중졸 이하	9.9	18.9	48.6	20.7	0.9	0.9	100.0	111	1.84
고졸	2.9	20.3	61.3	14.1	1.1	0.3	100.0	1,948	1.91
대졸	3.2	23.0	62.5	9.7	1.4	0.3	100.0	1,481	1.84
대학원 졸	2.3	31.8	52.3	13.6	0.0	0.0	100.0	44	1.77
계	3.3	21.5	61.3	12.4	1.2	0.3	100.0	3,584	1.88

기혼부인의 취업상태별 총 출생이수를 보면, 취업중에 있는 부인은 평균 1.60명의 자녀를 가지고 있는 반면, 비취업상태에 있는 부인의 경우 총출생이수는 1.70명으로 0.10명 많은 수준에 있다.

〈표 5-16〉 취업상태별 총출생아수의 분포

(단위: %, 명)

	0	1	2	3	4	5	계	N	평균
취업중	12.6	24.1	54.9	7.9	0.3	0.2	100.0	1,501	1.60
비취업-구직	7.4	27.1	53.9	11.4	0.2	0.2	100.0	542	1.70
비취업-비구직	6.2	28.8	53.9	10.7	0.3	0.1	100.0	1,541	1.70
계	9.0	26.6	54.3	9.7	0.3	0.1	100.0	3,584	1.66

기혼부인이 기대하는 총 자녀수의 분포 역시 취업 중에 있는 부인의 경우 1.81명으로 비취업 상태에 있는 부인보다 적었으며, 소폭이지만, 구직 중에 있는 부인보다는 비구직 상태에 있는 부인에게서 조금 더 많은 평균 자녀수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5-17〉 취업상태별 기대되는 총출생아수의 분포

(단위: %, 명)

	0	1	2	3	4	5	계	N	평균
취업중	4.7	23.0	61.1	10.1	0.9	0.3	100.0	1,502	1.81
비취업-구직	2.6	20.3	61.7	14.2	1.3	0.0	100.0	543	1.91
비취업-비구직	2.1	20.5	61.4	14.1	1.4	0.5	100.0	1,541	1.93
계	3.3	21.5	61.3	12.5	1.1	0.3	100.0	3,586	1.88

가구소득별로 총출생아수의 분포를 보면, 가구소득이 증가될수록 평균 총 출생 자녀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수준과 자녀수는 정비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즉 20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을 가지고 있는 부인의 경우 평균 자녀수가 1.60명인데 비하여 500만원 이상인 경우 평균 총출생아수는 1.7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8〉 가구소득별 총출생아수의 분포

(단위: %, 명)

	0	1	2	3	4	5	계	N	평균
1~199만원	10.2	31.3	47.9	10.0	0.4	0.2	100.0	480	1.60
200~299만원	9.7	29.5	50.3	10.4	0.1	0.1	100.0	973	1.62
300~399만원	9.0	26.0	56.1	8.5	0.5	0.0	100.0	1,036	1.66
400~499만원	9.1	23.3	59.5	8.0	0.2	0.0	100.0	563	1.67
500만원 이상	6.8	21.9	57.6	13.0	0.5	0.2	100.0	439	1.79
계	9.1	26.7	54.1	9.7	0.3	0.1	100.0	3,491	1.66

가구소득별로 기대되는 총출생아수의 분포를 보면, 가구소득이 증가될수록 평균 총 출생 자녀수가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수준과 기대자녀수는 정비례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즉 200만원 미만의 가구소득을 가지고 있는 부인의 경우 평균 자녀수가 1.86인데 비하여 500만원 이상인 경우 평균 총출생아수는 1.9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구소득이 적은 계층이 가구소득이 많은 계층보다 추가 자녀수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9〉 가구소득별 기대되는 총출생아수의 분포

(단위: %, 명)

	0	1	2	3	4	5	계	N	평균
1~199만원	5.0	22.7	56.5	13.5	1.7	0.6	100.0	480	1.86
200~299만원	3.7	23.1	58.8	12.9	0.9	0.5	100.0	973	1.86
300~399만원	2.8	21.1	63.9	11.2	0.9	0.1	100.0	1,036	1.86
400~499만원	3.2	21.2	64.2	11.0	0.4	0.0	100.0	562	1.84
500만원 이상	1.6	19.1	61.0	15.5	2.5	0.2	100.0	439	1.99
계	3.3	21.7	61.1	12.5	1.1	0.3	100.0	3,490	1.87

읍·면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부인에게서 총자녀수가 1.76명으로 나타나 도시지역 거주 부인의 총 자녀수 1.64명보다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0〉 거주지역별 총출생아수의 분포

(단위: %, 명)

	0	1	2	3	4	5	계	N	평균
시	9.2	27.2	54.3	9.1	0.3	0.2	100.0	3,078	1.64
읍·면	8.3	23.1	54.4	13.2	0.6	0.4	100.0	507	1.76
계	9.0	26.6	54.3	9.7	0.3	0.1	100.0	3,585	1.66

읍·면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부인에게서 기대되는 총자녀수가 2.01명으로 나타나 도시지역 거주 부인의 기대되는 총 자녀수 1.85명보다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1〉 거주지역별 기대되는 총출생아수의 분포

(단위: %, 명)

	0	1	2	3	4	5	계	N	평균
시	3.3	22.4	61.6	11.5	1.0	0.3	100.0	3,078	1.85
읍·면	3.0	16.4	60.1	18.2	1.8	0.6	100.0	506	2.01
계	3.2	21.5	61.4	12.4	1.1	0.3	100.0	3,584	1.88

기혼부인의 출생 국적별로 보면, 한국보다 외국에서 출생한 부인의 경우 자녀의 수가 1.10명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외국 출생부인의 연령이 적기 때문에 현재 완결된 출산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표 5-22〉 출생국적별 총출생아수의 분포

(단위: %, 명)

	0	1	2	3	4	5	계	N	평균
한국	8.8	26.4	54.7	9.7	0.3	0.1	100.0	3,540	1.67
외국	29.5	38.6	22.7	9.1	0.0	0.0	100.0	44	1.10
계	9.0	26.6	54.3	9.7	0.3	0.1	100.0	3,584	1.66

그러나 기대되는 총 출생이수로 보면, 외국 출생 부인은 한국 출생 부인의 1.88명에 비해 조금 적은 1.72명을 기록하고 있다.

〈표 5-23〉 출생국적별 기대되는 총출생이수의 분포

(단위: %, 명)

	0	1	2	3	4	5	계	N	평균
한국	3.1	21.5	61.6	12.4	1.2	0.3	100.0	3,541	1.88
외국	15.6	22.2	40.0	17.8	2.2	2.2	100.0	45	1.72
계	3.3	21.5	61.3	12.5	1.2	0.3	100.0	3,586	1.88

초혼연령은 총 출생이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초혼연령이 높을수록 출산아 수는 적어지는 분포를 보이고 있다. 즉, 초혼연령이 25세 미만인 경우 평균 총 자녀수는 1.88명인 반면, 초혼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총 출생 자녀수는 1.24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표 5-24〉 초혼연령별 총출생이수의 분포

(단위: %, 명)

	0	1	2	3	4	5	계	N	평균
~24세	2.8	22.2	60.5	13.8	0.5	0.3	100.0	1,514	1.88
25~29세	11.1	28.5	52.9	7.3	0.2	0.0	100.0	1,527	1.57
30세 이상	22.0	36.6	37.3	3.9	0.2	0.0	100.0	464	1.24
계	8.9	26.8	54.1	9.7	0.3	0.1	100.0	3,505	1.66

기대되는 총출생이수를 보아도 초혼연령과의 마이너스 상관성이 나타나고 있다. 초혼연령이 25세 미만인 경우 평균 총출생 자녀수는 1.97명으로 나타났으며, 초혼연령이 30대 이상인 경우 기대되는 총 자녀수는 1.72명으로 나타났다.

〈표 5-25〉 초혼연령별 기대되는 총출생아수의 분포

(단위: %, 명)

	0	1	2	3	4	5	계	N	평균
~24세	1.5	18.5	63.4	15.2	0.9	0.5	100.0	1,515	1.97
25~29세	3.4	22.0	63.1	10.2	1.1	0.1	100.0	1,525	1.84
30세 이상	7.5	30.4	48.3	11.0	2.2	0.6	100.0	464	1.72
계	3.1	21.6	61.3	12.5	1.2	0.3	100.0	3,504	1.88

재혼한 기혼부인은 평균 출생아수가 1.72명으로서 초혼 부인의 1.66명에 비해 소폭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6〉 재혼여부별 총출생아수의 분포

(단위: %, 명)

	0	1	2	3	4	5	계	N	평균
초혼	9.0	26.6	54.4	9.5	0.3	0.1	100.0	3,546	1.66
재혼	12.8	20.5	46.2	20.5	0.0	0.0	100.0	39	1.72
계	9.0	26.6	54.3	9.7	0.3	0.1	100.0	3,585	1.66

재혼한 기혼부인은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수가 2.02명으로서 향후 0.3명의 자녀를 추가로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초혼 부인의 기대 자녀수는 1.88명으로서 0.22명을 추가로 낳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 5-27〉 재혼여부별 기대되는 총출생아수의 분포

(단위: %, 명)

	0	1	2	3	4	5	계	N	평균
초혼	3.2	21.6	61.5	12.3	1.1	0.3	100.0	3,546	1.88
재혼	7.7	15.4	46.2	28.2	2.6	0.0	100.0	39	2.02
계	3.3	21.5	61.3	12.5	1.1	0.3	100.0	3,585	1.88

이혼한 기혼부인은 평균 출생아수가 1.37명으로서 이혼하지 않은 부인의 1.68명에 비해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5-28〉 이혼여부별 총출생아수의 분포

(단위: %, 명)

	0	1	2	3	4	5	계	N	평균
아님	8.8	25.9	55.0	9.9	0.3	0.1	100.0	3,413	1.68
이혼	14.0	40.1	40.7	5.2	0.0	0.0	100.0	172	1.37
계	9.0	26.6	54.3	9.7	0.3	0.1	100.0	3,585	1.66

이혼한 부인은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수가 1.38명으로서 향후 0.01명의 자녀를 추가로 낳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반면, 이혼하지 않은 부인의 기대 자녀수는 1.90명으로서 0.22명을 추가로 낳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이혼은 기대 자녀수의 증가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29〉 이혼여부별 기대되는 총출생아수의 분포

(단위: %, 명)

	0	1	2	3	4	5	계	N	평균
아님	2.8	20.5	62.3	12.8	1.2	0.3	100.0	3,413	1.90
이혼	13.4	40.7	40.7	5.2	0.0	0.0	100.0	172	1.38
계	3.3	21.5	61.3	12.5	1.1	0.3	100.0	3,585	1.88

총 출생자녀수와 기대자녀수로 출산력을 측정하고 분석한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출생자녀수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출생자녀수는 적어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가구 소득수준은 출산력과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 가구에서 출생아수가 조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읍·면지역이 동 지역보다 출생아수가 많으며, 유배우자에 비해 이혼을 한 경우 출생아수가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연령은 출생아수에 큰 영향을 보이고 있는 바, 결혼 연령이 24세 이하인 경우 평균 출생아 수가 1.88명으로 많은 반면, 결혼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평균 출생아 수는 1.72명으로 적어지고 있다.

한편, 현재의 총 자녀수에 앞으로 기대되는 추가 계획 자녀수를 합친 개념인 바, 연령이 증가할수록 기대 출생자녀수의 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기대 자녀수는 적어지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가구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기대자녀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읍·면지역이 동 지역보다 출생이수가 많으며, 유배우자에 비해 이혼을 한 경우 기대 자녀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연령은 출생이수에 큰 영향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총 출생아 수와 기대되는 총 출생아 수에 대하여 다변량분석을 통하여 기혼부인의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다용된 변수는 다음과 같다.

〈표 5-30〉 기혼부인의 출산력 분석에 사용된 변수

변수	변수명	부호화
종속변수	nocld	총 출생자녀수
	expclد	기대 자녀수(총 출생이수 + 추가계획 자녀수)
독립변수	age	연령
	edu	교육수준
	lninc	가구소득의 자연로그값
	eupmyun	1=읍·면, 0=동지역
	remar	1=재혼, 0=아님
	divorce	1=이혼 별거, 0=아님
	marage	결혼연령
	national	1= 외국출생자, 0= 한국출생자

회귀분석 결과, 개인 변수 중에서는 연령과 거주지역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연령이 높아질 수록 총 출생아 수와 기대자녀수는 많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다변량 회귀 분석에서도 읍·면지역 거주자인 경우 동지역에 비해 출생아 수와 추가 기대자녀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수준과 가구 소득은 기혼부인의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편, 외국출생

자의 출생이수는 한국출생 부인에 비해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대출생이수를 보면, 이러한 영향은 사라지므로, 한국출생부인의 기대자녀수만큼 출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혼변수로서 결혼연령과 재혼여부 그리고 이혼 및 별거여부를 분석한 바, 재혼변수를 제외한 결혼연령과 이혼 여부가 기혼부인의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 연령이 높을수록 총 출생아 수 및 기대 자녀 수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연령 1세 상승 시 총 출생아 수가 0.067명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혼 및 별거 여부는 출생 자녀수의 감소와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5-31〉 기혼부인의 출산력을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

설명		총출생아 수		기대 출생아 수		
		B	Beta	B	Beta	
상수		1.430	-	2.136	-	
개인 변수	age	연령	.059***	.378	.016***	.113
	edu	교육수준	.018	.021	-.001	-.001
	lninc	가구소득의 자연로그값	-.051	-.030	-.022	-.014
	eupmyun	읍·면지역	.146***	.064	.161***	.077
	national	외국출생자	-.240*	-.033	-.096	-.015
결혼 변수	marage	결혼연령	-.067***	-.326	-.028***	-.149
	remar	재혼자	.0208	.027	.206	.029
	divorce	이혼 및 별거자	-.520***	-.138	-.625***	-.181
F		129.573***		29.067***		
R2		.233		.064		

* p <.05 ** p <.01 *** p <.001

제3절 결혼에 대한 가치관 및 결혼 정책의 필요성

우리나라 기혼부인의 경우 혼인상태별로 결혼에 대한 생각에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특히 이혼이나 별거 등의 경우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미혼의 경우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20.3%로서 기혼자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응답한 비율이 2.6%로 나타났다. 이처럼 우리나라 미혼인구는 보편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결혼을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는 식의 가치관을 가진 미혼인구의 비율도 28.3%로 높게 나타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32〉 결혼에 대한 생각

구분	유배우	사별	이혼	별거	기혼전체	미혼
반드시 해야 한다	14.6	5.3	7.5	6.4	14.1	20.3
하는 편이 좋다	50.6	60.5	28.3	31.9	49.7	46.4
해도 좋고 하지 않아도 좋다	30.6	28.9	40.0	48.9	31.1	28.3
하지 않는 것이 낫다	4.2	5.3	24.2	12.8	5.0	2.6
모르겠다	-	-	-	-	-	2.5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 추정수	3,290	38	120	47	3,495	3,314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원자료 재분석.

한편, 20~44세 기혼 부인의 경우 결혼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3.8%이고 다소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6.2%로서 기혼부인의 80%가 결혼에 대한 국가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미혼 인구 역시 결혼에 대한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6.3%로서 3/4 이상이 필요함을 인정하고 있었다.

〈표 5-33〉 결혼에 관한 국가정책에 대한 생각

구분	유배우	사별	이혼	별거	기혼전체	미혼
매우 필요함	24.1	20.5	18.0	20.4	23.8	21.0
다소 필요함	56.2	64.1	54.9	55.1	56.2	55.3
별로 필요없음	16.5	10.3	24.6	24.5	16.8	20.3
전혀 필요없음	3.2	5.1	2.5	0.0	3.1	3.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 추정수	3,365	39	122	49	3,575	3,313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원자료 재분석.

그러나 결혼에 대한 국가 정책의 내용을 보면, 주택마련 지원과 결혼비용 용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기혼의 경우 주택마련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55.2%로서 많았으며, 미혼인구의 경우 결혼비용 용자 등 지원이 24.4%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34〉 (필요한 경우) 필요한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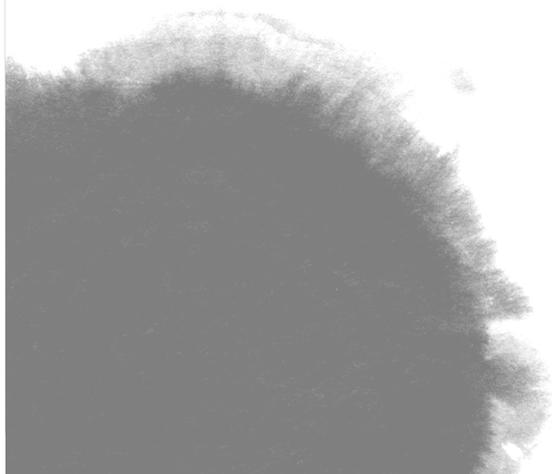
구분	유배우	사별	이혼	별거	기혼전체	미혼
결혼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8.9	6.1	9.2	2.7	8.8	9.6
이성 간 만남의 장 마련	5.9	3.0	8.0	0.0	5.9	6.5
결혼준비교육 프로그램 제공	11.2	18.2	19.5	8.1	11.5	12.6
주택마련 지원	55.0	60.6	51.7	78.4	55.2	43.2
결혼준비를 위한 휴가제도	2.3	0.0	4.6	0.0	2.3	3.4
결혼비용 용자 등 지원	16.3	9.1	6.9	10.8	15.8	24.4
기타	0.4	3.0	0.0	0.0	0.4	0.3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국 추정수	2,673	33	87	37	2,830	2,461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원자료 재분석.



06

결론 및 정책제언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결론

저출산 고령 사회는 우리가 극복해야할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 가고 있다. 이의 극복을 위해 정부에서는 출산장려정책을 범국민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출산장려정책은 저출산의 원인으로 파악되는 여러 차원에서 입안되고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거시적인 차원에서 출산장려정책 등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는 합계출산율 지표가 현실을 보다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보완하고 출산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면서 얼마만큼의 영향이 있는지 검토가 제대로 안된 혼인의 영향을 검토해 보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 현재 주요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는 합계출산율 개념을 유배우상태 보정 합계출산율 작성방법을 제안하고 미혼인구의 영향으로 분리하였다. 이를 시산해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 번째, 유배우상태 보정 합계출산율을 이용하여 합계출산율의 의미인 총출생자녀수를 측정할 수 있었으며, 두 번째, 합계출산율로부터 미혼인구의 영향을 분리할 수 있었다. 즉, 템포조정 된 유배우상태 보정 합계출산율과 템포조정 된 합계출산율로 미혼인구의 영향을 분리하였다.

우리나라 통계자료에 이를 반영해 본 결과, 템포효과를 제거한 조정 유배우상태 보정 합계출산율은 2009년 1.72명이며, 조정 합계출산율은 1.48

명으로 미혼인구로 인한 영향이 0.2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혼인구로 인해 0.24명 정도 합계출산율을 낮추고 있었다. 향후 안정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인구대체수준의 합계출산율인 2.1명이 되기 위해서는 유배우상태 보정 합계출산율은 2.4명 수준이어야 한다. 즉 유배우자 2명 중 1명은 3명을 1명은 2명의 아이를 출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2009년의 수치이고 사실상 미혼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향후 미혼자가 늘어나고 유배우자가 준다고 가정하였을 때 유배우상태 보정 합계출산율은 이보다 더 높아야 할 것이다.

향후 저출산의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유배우자의 출산율 상승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유배우 부인당 약 3명의 자녀를 출산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여야 하므로 이것은 사실상 실현이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미혼율을 낮추는 방향 즉, 혼인을 장려하는 정책을 통해 미혼율을 낮추는 것이 저출산 해결의 열쇠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거시적인 분석에 더하여 미시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미시적인 분석 결과 최근의 저출산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초혼연령의 증가 등 만혼화와 이혼 등 결혼 행태의 변화 등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자녀 출산 시기가 늦어져 출산 수준의 획기적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처럼 미시적인 분석 역시 초혼연령을 낮출 수 있는 정책인 혼인장려정책의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미혼인구의 결혼의향 분석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취업은 결혼의향의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남녀 모두 교육기간의 증대와 취업준비 기간의 확대 등의 요인으로 초혼연령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학원 진학이나 취업준비생 등 결혼적령기 남녀의 결혼을 현실화 할 수 있는 지원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특히 미혼인구의 결혼의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청년 취업률의 상승이 큰 영향을 미치므로 청년 미혼인구의 취업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산율은 결혼 행태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지금과 같은 만혼화

가 계속되지 않도록 정책적인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결혼에 대한 국가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 동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결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며, 특히 주택 마련에 소요되는 비용과 결혼 비용의 지원 요구도 높았다.

제2절 정책제언

저출산의 원인은 미혼인구의 초혼연령의 증가 등 만혼화와 이로 인하여 기혼부인의 자녀 출산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출산 수준의 상승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저출산 대책이 요구된다. 실제로 결혼연령은 출생이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마이너스 효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혼과 같은 결혼 행태의 변화 역시 출생이수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었다. 남녀 모두 교육기간의 증대와 취업준비 기간 확대 등의 요인으로 초혼연령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초혼연령을 낮출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혼외출산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결혼 후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유배우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결혼에 대한 국가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대부분의 미혼 및 기혼 여성이 동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결혼과 출산 친화적 정부의 정책이 필요하다.

1. 만혼 및 결혼기피 방지를 통한 결혼율 제고

앞서 분석한 바와 같이 합계출산율 개념을 유배우상대 보정 합계출산율 작성방법을 제안하고 미혼인구의 영향으로 분리한 결과 향후 안정인구를 유지하기 위한 인구대체수준의 합계출산율인 2.1명이 되기 위해서는 유배우상대 보정 합계출산율은 2.4명 수준이어야 한다. 향후 저출산의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유배우자의 출산율 상승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유배우

부인당 약 3명의 자녀를 출산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여야 하므로 이것은 현 여건에서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미혼율을 낮추는 방향 즉, 혼인을 장려하는 정책을 통해 미혼율을 낮추는 것이 저출산 해결의 열쇠로 보인다.

미혼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서 결혼에 유리한 사회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먼저, 결혼 관련 교육, 정보 및 서비스의 체계적 제공이 요구된다. 건전혼례문화조성을 통한 결혼비용 부담 완화정책과 주택 마련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리고 결혼자금 대출 등 결혼 비용의 지원 등 결혼에 대한 사회제도적 지원장치의 강화가 필요하다. 미국 대학가의 부부 학생을 위한 저렴한 기숙사나 아파트 등과 같이 대학원 진학이나 취업준비생 등 결혼적령기 남녀의 결혼을 현실화 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이 요구되며, 기혼 사병의 복무기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신혼부부의 주택자금 융자조건 우대 및 소득공제 확대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미혼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강화가 필요하다.

2. 유배우 출산율 제고

향후 안정인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배우상태 보정 합계출산율은 2.4명 수준이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유배우 부인의 출산율 상승이 요구된다. 유배우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출산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산전진단검사 보험적용 확대, 자연분만 보험진료비 전액 지원 등 출산관련 비용의 건강보험 지원 강화를 통해 임신·출산과 관련된 비용의 사회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자녀 보육 및 교육 등 양육비 절감 정책 및 양육비 지원 강화도 필요하다. 보육비 및 교육비 지원 강화, 3자녀 이상 대상 자녀의 교재교구비, 학교피복비, 교통비 등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유연한 근무형태의 확산, 휴가휴직제도의 활성화, 육아지원 인프라의

강화 등이 요청된다.

그리고 3자녀 이상 가정 대상 주거지원 강화가 요청된다. 국민주택규모 아파트 분양순위 상향 조정, 임대아파트 우선분양 및 평형 선택시 우대, 주택자금 융자 확대 등이 있어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이동수당 등을 통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소득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3. 여성의 경력 단절 방지 등 결혼·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여성의 경력 단절 방지 등 결혼·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족친화적 및 양성 평등적 가족 및 직장 문화운동을 전개하고, 결혼과 출산 시 직무배치, 승진 등에서의 차별 관행을 철폐하며, 초·중·고 교과과정 교재에 시대에 맞는 인구교육내용을 반영하는 등 결혼 및 자녀 가치관을 정립하여야 한다. 또한 대중매체를 통한 인구문제의 심각성을 홍보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하는 등 결혼·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참고 문헌

- 김두섭(2006). 출산력의 사회문화적 결정요인. 인구대사전. 한국인구학회편.
- 김두섭 외(2007). 저출산 사회의 결혼·자녀양육과 가족생활 연구.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07-18-02.
- 김두섭(2007a). IMF 경제 위기와 한국출산력의 변화. 집문당.
- 김두섭(2007b). IMF 외환위기와 사회경제적 차별출산력의 변화. 한국인구학, 30(1), pp.67-95.
- 김승권(2004). 최근 한국 사회의 출산을 변화원인과 향후 전망. 한국인구학, 27(2), pp.1-34.
- 김정석(2006). 미혼남녀의 결혼의향 비교분석. 한국인구학, 29(1), pp.57-70.
- 김태현·이삼식·김동희(2001). 출산력 저하의 원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총서 10.
- 김혜선·박혜인·옥선화(2002). 가족관계학.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 김혜선·이정읍(2003). 미혼남녀의 결혼준비도. 대한가정학회지, 41(2), pp. 211-224.
- 김혜순(1982). 한국부인의 이상자녀 수 감소 변인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경숙·김영혜·김현숙(2005). 남녀 결혼시기 연장의 주요 원인: 계층, 성 역할 분리규범, 경제조직의 우발적 결합. 한국인구학, 28(2), pp.33-62.
- 박순일 외(2004). 저출산 현황과 전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야마구찌 가즈오(2010). 일과 가정의 양립과 저출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유홍준·현성민(2010). 경제적 자원이 미혼 남녀의 결혼 연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33(1), pp.75-101.
- 은기수(1995). 결혼으로 이행에 있어서 연령규범과 순서규범. 한국인구학, 18(1), pp.89-117.
- 은기수(2001). 결혼연령 및 결혼코호트와 첫 출산 간격의 관계. 한국인구학, 35(6), pp.105-139.
- 은기수(2001). 현대 한국사회의 가족가치관 결혼에 대한 태도의 성별차이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24(4), pp.241-258.
- 은기수(2004). 한국의 가족가치에 관한 국제비교, 제1차 한국종합조사(KGSS) 심포지엄.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삼성경제연구소, pp.181-205.
- 은기수(2005). 미혼에서 결혼으로 이행. 보건복지포럼, 4, pp.25-35.
- 이삼식 외(2004). 인구고령화의 전개와 인구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신인철·전남훈 외(2005).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정운선·김희경 외(2005).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 외(2006). 미래세대의 결혼·출산 친화적 가치관 정립을 위한 종합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2006).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 및 출산 행태에 미치는 영향. pp.98-111.
- 이성용(2006). 경제위기와 저출산. 한국인구학, 29(3), pp.111-137.
- 이인수(1994). 한국 여성의 결혼전이 시기에 미치는 결정요인 연구 - 1940, 50년대 코호트를 중심으로 -.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 전광희(2002). 출산력. 「한국의 인구」 통계청, pp81-113
- 조병구·조운영·김정호(2007). 출산지원정책의 타당성 및 지원효과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
- 조은(2008).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가족 정치의 지형; 계급과 젠더의 경합. 한국여성학, 24(2), pp.5-27.

- 조혜정(1988). 자녀수 결정과 관련된 변인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희금·고선강·어성연(2009). 결혼지연 요인에 대한 사회적 대응방안 마련. 보건복지가족부 연구용역보고서
- 최새은·옥선화(2003). 30대 기혼남녀의 초혼연령 결정요인 연구. 한국가족 관계학, 8(1), pp.53-73.
- 최은영·박영식(2009). 사회경제적 특성과 지역별 차별 출산력 분석. 통계개발원
- 통계청(2009).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이혼편).

Anderson, K. H., M. A. Hill, & J. S. Butler(1987). Age at marriage in Malaysia: A hazard model of marriage timing.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26, pp.223-234.

Atoh, Makato(1998). "Countries with substantially below-replacement fertility: the case of Japan." *A paper presented to the International Symposium: Population and Development Policies in Low fertility Countries: Challenges of changing age structures*,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Seoul, 7-12 May 199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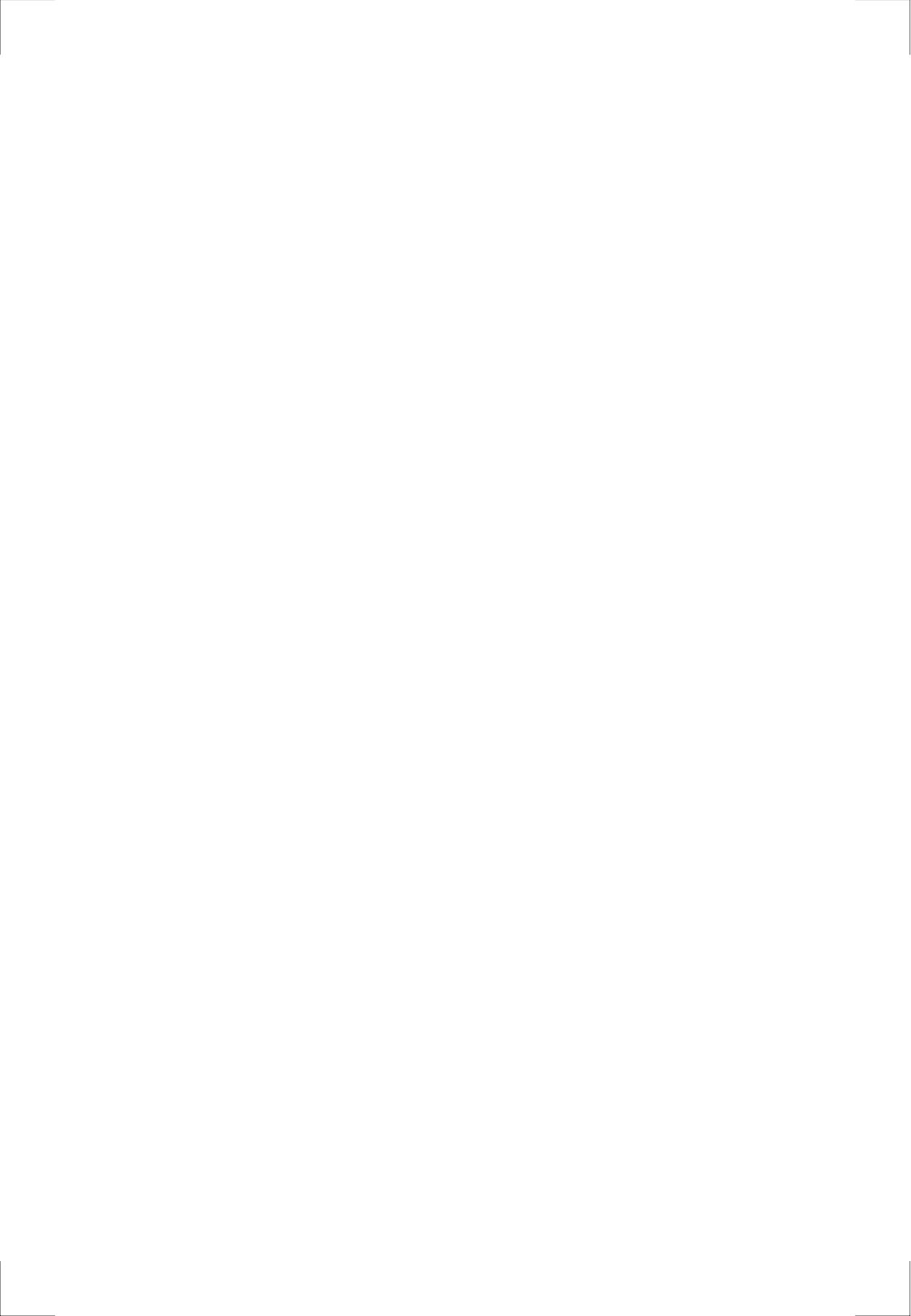
Atoh, Makoto(1998). Traditional Family Values of Unmarried Women-in Relevance to the Phenomenal Rise in the Proportion Never Married, PPRC, *The Mainichi Shimbun*, pp.117-150.

Beets, G(1997). "European Variations in Education and in Timing of First Birth: Primarily FFS Evidence". *A Paper Presented in the 23rd General Population Conference of the IUSSP*. 11-17 October 1997, Beij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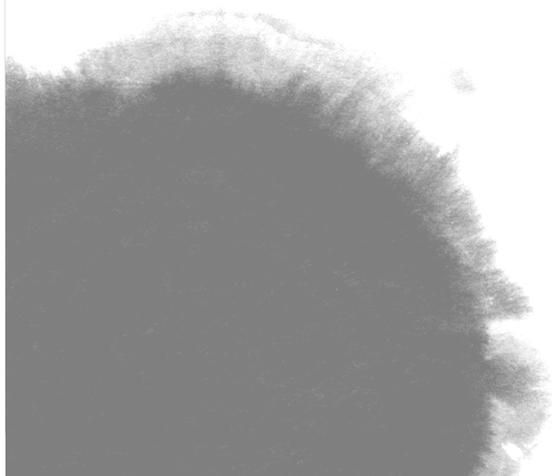
Bongaarts, J.(1999). The Fertility Impact of Changes in the Timing of Childbearing in the Developing World. *Population Studies*, 53(3), 277-289.

- Bongaarts, J. and Feeney, G.(2000). On the Quantum and Tempo of Fertility: A Repl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6, pp.560-564.
- Bongaarts, J. and Feeney. G.(1998). On the Quantum and Tempo of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4(2), pp.271-291.
- Casper, L. M. & Bianchi., S. M.(2002). Continuity and Change in the American Family.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
- Diekmann, A., & Engelhardt, H.(1999). "The Social Inheritance of Divorce: Effects of Parents' Family Type in Postwar German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4, pp.783-793.
- Freedman, Ronald.(1995). "Asia's Recent Fertility Decline and Prospects for Futute Demographic Change," Asia-Pacific Population Research Reports No. 1. Honolulu: East-west Center.
- Goldsheider, F. K., & L. J. Waite(1986). Sex differences in the entry into marriag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2, pp.91-109.
- Kim Choe, Minja and Li Lei.(1997). "Later Marriage or No Marriage: An Examination of Marriage Pattern in Korea Using A Mixture Model for Duration Data." *A Paper Presented in the 23rd General Population Conference of the IUSSP*, 11-17 October 1997. Beijing.
- Lesthaeghe, R. & J. Surkyn(1988). Cultural Dynamics and Economic Theories of Fertility Chang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4(1), pp.1-45.
- Lloyd K. M. & s. J. South(1996). Contextual influences on young men's transition to first marriage. *Social Forces*, 74(3), pp.1097-1119.
- MacDonald, M. &D. Rindfuss(1981). Earnings, relative income, and family formation. *Demography*, 18, pp.123-136.

- Marini, M. M.(1985). Determinants of the timing of adult role entry. *Social Science Research*, 14, pp.309-350.
- McLanahan, S. & Bumpass, L.(1988). "Intergenerational Consequences of Family Disrup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pp.130-152.
- Palomba R. A. Menniti, & M. G. Caruso(1997). Demographic changes, values and attitudes of young Italians, *IUSSP XXII General Conference, Session 42*, Pechino, pp.11-17 Ottobre.
- Shostak A.(1987). "Singlehood" in M. Sussman & S. Steinmetz (eds.) *Handbook of Marriage and the Family*, pp.355-368, New York: Plenum.
- Teachman, J. D., Polonko, K. A., & Leigh, G. K.(1987). Marital timing: Race and sex comparisons. *Social Forces*, 66(1), pp.239-268.
- Thornton, A., W. Axinn, & J. Teachman(1995). The influence of educational experiences on cohabitation and marriage in early adulthood.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0, pp.762-774.
- Waite, L. J. and G. D. Spitze(1981). Young Women's Transition to Marriage. *Demography*, 18, pp.681-694.



부 록





부록

〈부표 1〉 혼외출생아 수 및 비율

연 도	출생아수	혼인외 출생아수	혼외출생비율
1981	867,409	9,741	1.12
1982	848,312	9,002	1.06
1983	769,155	8,033	1.04
1984	674,793	6,863	1.02
1985	655,489	6,645	1.01
1986	636,019	6,557	1.03
1987	623,831	5,859	0.94
1988	633,092	5,251	0.83
1989	639,431	5,161	0.81
1990	649,738	6,151	0.95
1991	709,275	7,259	1.02
1992	730,678	8,304	1.14
1993	715,826	8,799	1.23
1994	721,185	9,272	1.29
1995	715,020	8,748	1.22
1996	691,226	6,290	0.91
1997	668,344	4,196	0.63
1998	634,790	4,428	0.70
1999	614,233	4,716	0.77
2000	634,501	5,540	0.87
2001	554,895	5,330	0.96
2002	492,111	5,184	1.05
2003	490,543	6,082	1.24
2004	472,761	6,116	1.30
2005	435,031	6,459	1.48
2006	448,153	6,805	1.52
2007	493,189	7,774	1.58
2008	465,892	8,363	1.80

자료: 통계청, KOSIS, 각 연도.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비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 - 발간자료 - 간행물회원등록을 통해 가입
-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가입

▶ 회비납부

- 신용카드 결제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019-219956-01-014) 예금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의처

-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68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제협력홍보팀
간행물 담당자 (Tel: 02-380-8303)

도서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http://www.yes24.com |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

신간 안내

KIHAS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00-709 Seoul, Korea Tel: 02-2630-2000 Fax: 02-2630-2001

보고서 번호	서명	저자	가격
연구 2010-01	지역보건의료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이상영	5,000
연구 2010-02	회귀난치성질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 방안	박실바아	5,000
연구 2010-03	해외의료시장 개척의 투자효과 분석과 중장기 발전 전략	조재국	미정
연구 2010-04	식품안전분야의 사회적 위험 요인 중장기 관리전략 수립	정기혜	6,000
연구 2010-05	단체급식의 영양관리 개선을 통한 국민식생활 향상 방안	김혜련	미정
연구 2010-06	식품안전 규제영향분석의 실효성 제고 방안	곽노성	7,000
연구 2010-07	식품위해물질 모니터링 중장기 추진 계획 수립	김정선	5,000
연구 2010-08	건강보험 정책현황과 과제	신영석	7,000
연구 2010-09	의료비 과부담이 빈곤에 미치는 영향	신현웅	미정
연구 2010-10	국민연금급금 해위투자 환경 분석을 위한 주요 해외금융시장 비교 연구	원종욱	5,000
연구 2010-11	사회통합을 위한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이태진	5,000
연구 2010-12	한국 제3세대 육상방안에 대한 연구	노대명	8,000
연구 2010-13	기초보장제도 생계보장 평가와 정책방향	김태완	7,000
연구 2010-14	주거복지정책의 평가 및 개편방안 연구 : -기초보장제도 시행 10년 주거급여를 중심으로-	이태진	7,000
연구 2010-15	지활정책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향	노대명	7,000
연구 2010-16	2010년도 빈곤통계연보	김문길	8,000
연구 2010-17	OECD 국가 빈곤정책 동향분석: 복지사본주의 체제 변화에 따른 공공부조제도의 조응성 분석	여유진	7,000
연구 2010-18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개편방안의 효과성 분석 및 소득보장체계 연계방안 연구	최현수	8,000
연구 2010-19	이동복지정책 유형과 효과성 국제비교	김미숙	6,000
연구 2010-20	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최저수준 설정을 위한 연구: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윤상용	8,000
연구 2010-21	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자중심 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강혜규	미정
연구 2010-22	장애인의 통합사회 구현을 위한 복지정책 연구: 장애인정책발전5개년계획 복지분야 중간점검	김성희	8,000
연구 2010-23	민간 복지지원 확충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의 모색	박세경	7,000
연구 2010-24	자살의 원인과 대책연구: 정신의학적 접근을 넘어서	강은정	5,000
연구 2010-25	한국 노인의 삶의 변화 분석 및 전망을 통한 노인복지정책 개발	이윤경	7,000
연구 2010-26	보건복지통계 발전방안 연구	송태민	7,000
연구 2010-27	보건복지통계 생산 표준화 방안 연구: 메타정보관리를 중심으로	손창균	6,000
연구 2010-28	2010년 한국의 보건복지 동향	장영식	6,000
연구 2010-29	지역별 보건통계 생산방안	도세록	6,000
연구 2010-30-1	저출산 원인과 피급효과 및 정책방안	이삼식	미정
연구 2010-30-2	생애주기 변화와 출산수준 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교육, 경제활동 및 결혼을 중심으로	이삼식	5,000
연구 2010-30-3	결혼행태 변화와 출산율의 상관성 연구	변용찬	5,000
연구 2010-30-4	출산관련 의식변화의 출산율간 인과관계 연구	김나영	6,000
연구 2010-30-5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자녀가치와 출산율 관계 연구	김은정	5,000
연구 2010-30-6	저출산의 거시경제적 효과분석	남상호	6,000
연구 2010-30-7	저출산-고령화가 가족형태 및 개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김은재(외부)	6,000
연구 2010-30-8	자녀 양육비용 추계와 정책방안 연구	신윤정	6,000
연구 2010-30-9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보험 개편방안	윤석명	7,000
연구 2010-30-10	한국의 인구정책 동향과 전망	장영식	6,000
연구 2010-30-11	입양실태와 정책방안	김유경	미정

보고서 번호	서명	저자	가격
연구 2010-30-12	인공임신중절 실태와 정책과제	최정수	6,000
연구 2010-30-13	저출산 극복을 위한 불임부부 지원사업 현황과 정책과제	황나미	6,000
연구 2010-30-14	저출산·고령화시대 노동력 부족과 인력활용 방안	엄지혜	5,000
연구 2010-30-15	저출산정책 효과성 평가 연구	이삼식	5,000
연구 2010-30-16	저출산·고령사회 정보관리체계 및 통계DB 구축방안 연구	송태민	7,000
연구 2010-30-17	신노년층의 특징과 정책과제	정경희	6,000
연구 2010-30-18	베이비 부머의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정경희	10,000
연구 2010-30-19	에비노년층의 일과 여가에 대한 욕구와 정책적 함의	이소정	6,000
연구 2010-30-20	신노년층(베이비붐세대)의 건강실태 및 장기요양 이용욕구 분석과 정책과제	선우덕	5,000
연구 2010-30-21	신노년층의 소비행태 특성과 고령친화산업적 함의	김수봉	미정
연구 2010-30-22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관련 쟁점 연구	이소정	미정
연구 2010-31-1	2010 사회예산 분석	최성은	8,000
연구 2010-31-2	2010 보건복지제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9,000
연구 2010-31-3	정부의 사회복지재정 DB구축에 관한 연구(4차년도): DB의 활용성 측면을 중심으로	고경환	7,000
연구 2010-31-4	사회복지 재정지출과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연구	최성은	6,000
연구 2010-31-5	복지경영의 이론적 논의와 과제	고경환	6,000
연구 2010-31-6	공적연금 재정평가 및 정책현안 분석	윤석명	7,000
연구 2010-31-7	건강보험 재정평가	신영석	5,000
연구 2010-32-1-1	건강도시 건강영향평가 사업 및 기술 지원 제1권	김동진	8,000
연구 2010-32-1-2	건강도시 건강영향평가 사업 및 기술 지원 제2권	김동진	11,000
연구 2010-32-2	건강영향평가 DB 구축	서미경	미정
연구 2010-32-3	건강비율의 건강영향평가	최은진	5,000
연구 2010-33	보건의료지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3년차)	오영호	9,000
연구 2010-34	보건사회 기구편화 모니터링센터 운영 (1년차)	신호성	14,000
연구 2010-35	취약위기와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1년차)	김승권	미정
연구 2010-36	아시아 복지국가 자료 및 전략센터 구축 (1년차): 아시아 국가의 사회안전망	홍석표	8,000
연구 2010-37-1	2010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강신욱	14,000
연구 2010-37-2	2009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한 사회지표 분석	김미곤	6,000
연구 2010-38-1	2008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 보고서(Ⅱ)	정영호	11,000
연구 2010-38-2	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정영호	미정
연구 2010-39	인터넷 건강정보 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10년차)	정영철	7,000
연구 2010-40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2년차)	이연희	5,000
연구 2009-01	의료서비스 질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통합적 의료전달 시스템 구축 방안	신호성	7,000
연구 2009-03	신의료기술의 패던 변화에 따른 의사결정체제의 발전방향 -의약품 허가제도와 약가제도를 중심으로-	박살비아	6,000
연구 2009-04	생애의료비 추정을 통한 국민의료비 분석 (1)	정영호	6,000
연구 2009-05	미충족 의료수준과 정책방안에 대한 연구	허순임	5,000
연구 2009-06	식품안전관리 선진화를 위한 취약점 중점 관리방안 구축	정기혜	7,000
연구 2009-07	부문간 협력을 통한 비만의 예방관리체계의 구축 방안 -비만의 역학적 특성 분석과 비만예방관리를 위한 부문간 협력체계의 탐색	김혜련	8,000
연구 2009-08	국가건강검진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한 수요자 중심의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방안	최은진	7,000
연구 2009-09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험 확대적용 방안 - 국민연금을 중심으로 -	윤석명	7,000
연구 2009-10	글로벌 금융위기상행하의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방안	원종욱	8,000
연구 2009-11	건강보험 내실화를 위한 재정효율화 방안 -본인부담 구조조정 방안 중심으로	신현웅	6,000
연구 2009-12	A study for improving the efficiency of health security system the division of roles between public and private health insurance	홍석표	5,000

보고서 번호	서명	저자	가격
연구 2009-13	사회수당제도 도입타당성에 대한 연구	노대명	7,000
연구 2009-14	저소득층 지원제도의 유형 및 특성	여유진	8,000
연구 2009-15	저소득층 금융지원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김태완	6,000
연구 2009-16	한국의 사회위기 지표개발과 위기수준 측정 연구	김승권	13,000
연구 2009-17	이동청소년복지 수요에 기반한 복지공급체계 재편방안 연구 II: 지역유형별 사례를 중심으로	김미숙	8,000
연구 2009-18	한국가족의 위기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경제위기 이후 가족생애주기별 위기 유형을 중심으로	김유경	8,000
연구 2009-19	장애인 소득보장과 고용정책 연계 동향 및 정책과제	윤상용	8,000
연구 2009-20	사회지분과 민간 복지지원 수준의 국가간 비교연구. 자원봉사활동과 기부를 중심으로	박세경	6,000
연구 2009-21	사회복지부문별 정보화현황 및 정책적용방안	정영철	6,000
연구 2009-22	노인건강정책의 현황과 향후 추진방안. 일상생활기능의 자립향상을 중심으로	선우덕	7,000
연구 2009-23	노인의 생활활동 실태 및 경제적 가치 평가	정경희	6,000
연구 2009-24	보건복지가족부 웹사이트 통합 연계 및 발전방안 연구	송태민	7,000
연구 2009-25	한국의 보건복지 동향 2009	장영식	9,000
연구 2009-26-1	200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모니터링 및 평가 -법제정 10년의 제도운영 점검	이태진	10,000
연구 2009-26-2	가난한 사람들의 일과 삶 심리사회적 접근을 중심으로	이현주	6,000
연구 2009-26-3	근로빈곤층 지원정책 개편방안 연구	노대명	8,000
연구 2009-26-4	사회복지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분석	남상호	5,000
연구 2009-26-5	저소득층의 자산 실태 분석	남상호	5,000
연구 2009-26-6	2009년 빈곤통계연보	김태완	8,000
연구 2009-27-1	유럽의 능동적 복지정책 비교연구	홍석표	6,000
연구 2009-28	2008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	정영호	7,000
연구 2009-29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09년 보건의료자원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오영호	6,000
연구 2009-30-1	2009년 건강영향평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1권 (총괄)	강은정	10,000
연구 2009-30-2	2009년 건강영향평가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2권 -건강영향평가 시범사업	강은정	11,000
연구 2009-31-1	2009 사회예산 분석	최성은	9,000
연구 2009-31-2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7,000
연구 2009-31-3	정부의 사회복지재정 DB구축에 관한 연구(3차년도): 중앙재정 세출 예산을 중심으로	고경환	6,000
연구 2009-31-4	보육지원정책의 적정성 및 효과성 분석	최성은	6,000
연구 2009-31-5	지활사업의 평가 연구: 정책설계와 정책효과 그리고 쟁점들	고경환	7,000
연구 2009-32-1	2009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손창균	14,000
연구 2009-32-2	2008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 - 한국복지패널을 활용한 사회지표 분석	여유진	6,000
연구 2009-33	2009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김승권	14,000
연구 2009-34-1	다문화가족 증가가 인구의 양적·질적 수준에 미치는 영향	이삼식	5,000
연구 2009-34-2	저출산에 대응한 육아 지원 인프라의 양적·질적 적정화 방안	신윤정	6,000
연구 2009-34-3	장기요양등급의자 관리를 위한 노인복지관과 보건소의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방안	오영희	6,000
연구 2009-34-4	노인자살의 사회경제적 배경 및 정책적 대응방안 모색	이소정	6,000
연구 2009-34-5	고령친화상품 소비실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김수봉	7,000
연구 2009-35	보건복지통계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이연희	6,000
연구 2009-36	2009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정영철	7,000